Optic Weekly

Since 1993

www.opticweekly.com

ABC 부수인증매체 한국ABC협회

안경은 무조건 편해야 한다! 주간 옵틱위클리 2026년 2월 28일 발행 (387호)

05 ISSUE

노안치료 안약으로 FDA 승인을 획득한 유베지의 국내 출시가 전망되면서 이에 대한 안경업계의 철저한 대응이 절실해지고 있다.

08 NEWS IN NEWS

대전지방법원이 최근 젠틀몬스터의 안경과 매장 인테리어 등을 무단 침해한 혐의로 블루엘리펀트의 대표 최 모씨를 구속했다.

기사 제보 및 기고 문의

대 상 | 전국 안경사 및 업계 관계자
내 용 | 안경업계와 관련된 모든 내용
메 일 | Opticweekly@naver.com



기술이 브랜드가 되는 안경 체인

「無極眼鏡」

[무] [극] [안] [경]

누군가는 상품을 팔고,
우리는 기준을 만듭니다.

상담 및 가맹 문의 010-8562-7424

OLSO
NORDIC







VYLLAIN



COLOR TALKS!

TEL.053.551.8034 MAIL.olsonordic@naver.com



특허 출원

양면 비구면 특허 제10-1879359호
양면 비구면 특허 제10-2222850호

NEW 1.60 DAS

1.60 양면 비구면 싱글비전 렌즈 출시!

정밀한 설계로 탄생한 신제품, **1.60 양면비구면 싱글비젼 렌즈**가
한미스위스광학(주)의 기술로 새롭게 완성되었습니다.







www.hslens.co.kr


TOKAI
선명함과 넓은 시야 차세대 렌즈
HR EVENT
이벤트 기간 : 2026년 2월 1일 ~ 3월 31일
소비자가 인정한 편안함과 만족도
착용감 94%
선명도 95%
두께 95%
이벤트 자세히 보기
※ 본 설문조사는 총 300명의 기존 안경을 착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설문 항목에 대한 평가는 1점(매우 불만족)부터 5점(매우 만족)까지의 기준으로 수집되었습니다.

Optic Weekly
Since 1993
www.opticweekly.com
안경은 무조건 편해야 한다! 주간 옵틱위클리 2026년 2월 28일 발행 (387호)
ABC 부수인증매체 한국ABC협회

EIN®
www.ahinkorea.com
1박스도 전국 무료배송
주문 전화 031)987-9173
EDP 01 18(W)×24(H) mm
EDP 02 24(H)×24(W) mm
EDP 05 18(W)×18(H) mm

니시무라 안경공구 한국총판
취급품목 : 니시무라 공구 및 소모품, 니시무라 검안 관련품, 변색+편광 세미렌즈, 연마용 청테이프(일제)
키에스 상사
010-4289-4649
주소 : 서울 중구 소월로 16, 3층



과장된 '노안 치료제'… 안경사, 걱정보다 사전 대비해야

유튜브서 노안 'L 회복제' 파상 광고에 안경사들 고심… 미 FDA 승인한 노안 안약 '유베지' 국내에서 출시하면 안경시장 영향 불가피

최근 노안을 교정한다는 '노안 회복제'가 유튜브를 통해 급속 확산되면서 안경사들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그나마 약효의 신뢰성 문제로 그 위력이 태풍 속의 찻잔에 불과하지만, 국내 안경사의 심정은 착찹하다. 노안을 누진안경이 아닌 치료제로 교정·회복시킨다는 광고가 갈수록 안경사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것.

실제로 최근 유튜브에서 공격적으로 노출되는 노안 회복제라는 'L' 알약은 '3주만 복용해도 루테인을 수십 번 먹는 것보다 낫다' '먹자마자 침침한 초점이 중앙에 잡힌다'며 13년간 쓰던 다초점안경을 집어던지고 회춘했다는 자극적인 멘트로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 더구나 미국의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노안 치료제로 두 번째로 승인받은 유베지(YUVEZZI)가 올 연말경 국내에서도 정식 출시될 것으로 전망돼 안경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월에 FDA 승인을 마친 유베지는 오는 2분기 미국 시장에 출시된다. 또 유베지는 우리나라 판매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약신청(NDA)를 제출, 만약 국내에서 유베지가 출시된다면 그 영향으로 안경시장의 위축은 불가피하다. 안경사들의 철저한 준비와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 노안치료 안약인 '비즈'에 이어 두 번째로 FDA 승인을 획득한 '유베지'가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약신청을 마친 후 올해 연말 국내서도 출시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안경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안 안약 '유베지' 국내 식약처에 신약신청

글로벌 바이오 기업인 텐포인트 테라퓨틱스社에서 개발한 유베지는 지난 1월 29일 미국 FDA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8월 FDA로부터 최초의 노안치료 안약으로 승인받은 비즈(VIZZ)에 이어 두 번째다.

카바콜과 브리모니딘 주석산염 복합제인 유베지는 동공을 수축시켜 핀홀 효과를 유도해 근거리 시력과 초점 심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1회 점안하면 30분 후부터 효과가 나타나 최대 10시간까지 지속된다는 유베지는 무엇보다 '비즈'에 비해 눈부심이나 시야 흐림, 두통 등의 통증과 불편함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판권을 보유한 광동제약㈜은 지난해 9월 식약처에 유베지에 대한 품목허가를 신청해 현재 신약신청이 진행 중인데, 지난달 FDA 승인은 국내 허가 과정에서도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결국 미국 FDA에 이어 우리나라 식약처도 승인할 것이 예상되면서, 그 기대감으로 광동제약의 주가가 지난 23일 종가 대비 단기간에 6.54% 상승한 11,080원으로 거래되었다. 식약처에서 신약신청이 허가될 경우 늦어도 올해 연말쯤부터 국내시장 출시되어 안경업계에 미칠 영향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유베지의 등장은 국내 안경시장에 변화의 촉매제가 될 것이 분명하다. 유베지가 일부 안경사들의 우려대로 근용안경의 보조수단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 초기 노안 환자들이 누진안경 대신 안약을 선택하면서 저가형 기성 돋보기나 입문용 기능성렌즈 시장은 일부분 위축될 것이 확실시 된다.

서울 서초구의 한 안경원 원장은 "약물에 의한 강제적인 동공 수축은 수정체 조절력을 되살리기 힘들 것"이라며 "따라서 정교한 작업이나 장시간 독서가 필요한 노안인에겐 여전히 누진렌즈나 오피스 렌즈가 더욱 우수한 시각적 만족도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경사의 약효 검증과 부작용 사전에 익혀야

본지 칼럼리스트이면서 독일 자를란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학박사 과정 중인 김현선 검안사는 "해당 약물의 유럽의약품청(EMA) 승인 여부와 일정은 현재 공식 확인된 바가 없어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다"며 "다만 제품 설명서에 명시된 혈액순환 장애 및 잠재적 약물 상호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충분한 자료가 공개된 이후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다소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마산대학교 안경광학과 서재명 교수도 "제약사의 과다한 홍보로 노안약이 일시적으로는 시선을 끌겠지만, 이후 혁신적인 기술개발이나 다른 방향에서 노안에 좋은 성과가 나오면 바뀔 수 있다"며 "다만 중요한 것은 생활에서 좋은 시 습관과 자신의 눈 상태, 과업 패턴에 맞춘 '개인적 최적화'를 구축하는 것이 노안의 현명한 관리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 1호 검안학의 김재도 박사는 "약물에 의한 노안 치료법은 비수술적 노안 치료의 한 가지 옵션일 뿐 안경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또한 제조사의 경고에도 있듯이 노안인에게 흔히 나타나는 고혈압, 저혈압, 망막이상, 항우울증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모든 노안인들이 사용하기는 어렵고, 만약 사용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가끔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는 "따라서 안경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겠지만, 해당 약물이 본격 판매될 경우 노안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대비해 안경사가 유베지의 작용 원리와 부작용 등을 숙지하고, 이를 타파할 수 있는 새로운 업권 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김태용 기자

Tip. '유베지' 부작용 사례

유베지의 제조사인 텐포인트 테라퓨틱스社는 '이 안약은 시야를 흐리게 하고, 초점을 맞추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야간운전이나 조명이 어두운 환경에서는 사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즉 동공을 수축시키는 작용이 있기에 시야가 어둡게 보일 수 있는 것으로, 또한 드물게 망막박리의 위험이 있어 기존 망막 질환자는 안과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유베지는 일시적인 두통, 안구 통증 및 자극, 시야 흐림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안협 제53차 정기대의원총회 성료

참석 대의원들 제2의 도약에 한목소리… 새해 사업 등 모든 안건 원안대로 의결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 중앙회의 제53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26일 서울 영등포구 JK아트컨벤션 그랜드홀에서 개최됐다.

개회사를 통해 허봉현 협회장은 "대의원 여러분의 헌신이 없었다면 안경사 업무범위에 '굴절검사'를 명시한 이번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의 통과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법안 통과에 힘써주신 정계 인사들과 전국 16개 시도지부 회장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 허 협회장은 "우리의 권익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하며,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 비록 앞길이 험난한 가시밭길일지라도, 우리는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연직 및 일반 대의원 약 200여명이 참석한 이번 대의원총회는 ▶2025년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안) 승인의 건 ▶정관 개정에 관한 건 ▶기타 건의사항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모든 안건모두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후 총회 2부 행사를 마친 참석자들은 만찬과 친교의 시간을 가지며 시종 화기애애하고 순조롭게 마무리되었다.

다비치안경 • J&J, 국민의 눈 건강 위해 MOU

공동 TF 구성 후 추진 과제 선정키로 합의… 소비자의 경험 고도화 위해 업무협약

㈜다비치안경체인과 ㈜한국존슨앤드존슨비전케어(J&J)가 국내 소비자의 눈 건강 증진을 위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존슨앤드존슨의 아큐브 콘택트렌즈 포트폴리오를 디지털 이노베이션과 소비자 인사이트를 통해 소비자 경험을 고도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협약식의 양사 관계자들. 사진 좌측부터 차례대로 한국존슨앤드존슨비전케어 엘리자베스 리(이정현) 대표, 다비치안경체인 김봉건 대표, 존슨앤드존슨비전 아시아 • 태평양 Kohli Ashish 부대표.

이로써 양사는 향후 국내의 약 600만 이상의 시력교정 소비자와 1만여 안경사(ECP)를 지원하며, 다비치안경체인이 인공지능(AI) 기반의 도구와 서비스 도입을 가속화해 고객 참여도를 높이고, 더욱 전문화된 매장 내 경험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J&J의 엘리자베스 리 대표는 "이번 양사의 협약은 한국인의 눈 건강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양사의 공통된 의지를 담고 있다"며 "다비치안경의 신뢰받는 리테일 네크워크와 존슨앤드존슨의 임상 전문성, 그리고 아큐브의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결합해 난시와 노안을 포함한 다양한 시력교정 니즈를 가진 소비자에게 더욱 개인화되고, 디지털 기반의 아이케어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양사는 향후 공동 TF를 구성해 우선 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파일럿 프로젝트로 검증된 솔루션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소비자와 안경사, 리테일 현장 전반에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협업 모델을 만들 방침이다.

문의 acuvueprofed@its.jnj.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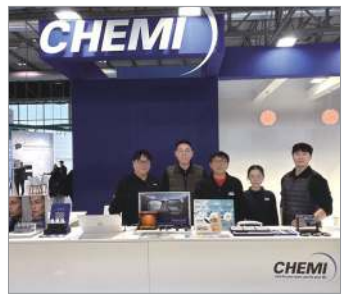
케미렌즈, 이태리 미도서 세계시장 공략

1.74 클리어 렌즈 등 8종 솔루션 출품… 세계인에 기술력 • 경쟁력 입증

㈜케미그라스(대표 반경민)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안경박람회 이탈리아밀라노광학전(MIDO 2026)에 참가해 글로벌시장 공략에 나섰다.

케미렌즈는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 총 8종의 주요 제품을 출품하고 다양한 체험형 시연을 통해 참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1.74 클리어 렌즈는 투명하고 선명한 시야 제공으로 세계 각국 업계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또한 ▶자외선과 블루라이트는 물론 근적외선까지 차단하는 IR 렌즈 ▶스크래치에 강한 이지스코팅 ▶기존 필름편광의 한계를 극복한 코팅 방식의 편광렌즈 폴라코트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솔루션이 큰 관심을 모았다.

160여 개국에서 4만명 이상의 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이번 광학전에서 첨단 아이웨어 제품과 현대적 디자인을 선보인 케미렌즈의 관계자는 "첨단 광학의 경연장인 미도 참가를 통해 한국 안경렌즈의 우수성을 유럽 시장에 널리 알릴 수 있었다"며 "자사는 이번 MIDO광학전에서 우리의 기술력과 브랜드 경쟁력을 세계 시장에 입증하고, 글로벌 안경렌즈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강화했다"고 전했다.



문의 055)387-3030

무신사 1위 안경은 '룩옵티컬 루키'

뛰어난 디자인과 착용감에 저가격으로 주요 모델마다 온 • 오프라인서 품절 사태

패션 온라인 플랫폼 무신사에서 안경테 부문 1위를 차지했던 룩옵티컬 '루키(LOOKY)'의 주요 모델이 현재 품절을 기록하고 있다. 무신사 1위에 올랐던 루키의 대표 모델 LC5994가 룩옵티컬 온•오프라인 전 채널 통합 베스트 1위를 차지하며 현재 품절 상태인 것. 또한 룩옵티컬 전국 오프라인 매장에서 베스트 1위 모델인 LC6002도 조기 완판되면서 높은 인기를 입증하고 있다.



이 같은 주요 모델의 잇따른 품절 사태는 디자인과 착용감 등 뛰어난 품질력에 대한 소비자 반응이 반영된 결과이다.

룩옵티컬의 관계자는 "자사는 브랜드 운영 초기부터 소비자의 취향을 고려한 다양한 디자인의 안경을 합리적인 가격대로 선보였다"며 "루키는 룩옵티컬의 다양한 제품군 중 최저가 라인이지만, 착용감과 품질 완성도의 기준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 컬렉션으로 이러한 장점이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어필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품절된 LC5994와 LC6002 모델은 추가 입고를 준비 중이며, 자사는 이를 계기로 루키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1599-3016

社 說

협회는 대인(大人)의 길을 걸어야

▶사람은 누구나 한두 번 땅바닥을 잘못 짚어 넘어진 경험이 있다. 그러나 대여섯 번 땅을 잘못 밟아 넘어졌다면 조심성이 부족한 이유도 크다. 자신의 조급성을 깨닫고 미리 조심하면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다. 국가나 단체도 마찬가지여서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면 상급(上級)이고, 예전의 실수를 미리 예방하면 중급(中級), 실수를 반복하면 하급(下級)이다.

사람은 흔히 대인(大人)과 도량이 좁은 소인(小人)으로 나눈다. 대인은 지위가 높거나 나이가 많아서 붙여진 수식어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완성된 사람을 뜻한다. 중국의 맹자는 대인을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다. 또 맹자는 감각적인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의로움을 좇으며, 이익에 얽매이지 않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을 대인이라고 했다.

▶개인이나 집단이나 발전하려면 인내가 필요하다. 처음에는 입에 써도 씹고 씹어야 단맛이 우러난다. 쓴맛을 참지 못하고 뱉어내면 단맛을 영영 맛볼 수 없다. '인내는 쓰되 그 열매는 달다'는 성현들의 말은 동서고금의 진리다.

더구나 특수 직종인 안경사들의 이익을 위해 구성된 안경사협회는 소속 회원들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 지난날의 구원(舊怨)이나 학연, 지연 등에 연연하지 않고 대인의 길을 걸어야 한다. 단체가 특정 세력과 반목하면 발전할 수도 없고 공통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 일례로 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시회나 각종 사업이 어느 한 곳에 특정하면 본래의 뜻이 왜곡되어 목표 달성이 어렵다.

협회의 회무를 소인의 마음가짐으로 운영하면 불협화를 낳고 반감을 키운다. 설사 어느 특정 매체가 제안하더라도 협회 집행부는 추진사업의 성공과 공통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전체가 다 함께 참여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 이것이 좋은 단체이고 바른 처신이다.

그동안 협회는 '내부에서 먼저 결속하고 단합하자'고 말해왔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협회 집행부의 언행이 일치하지 않고, 과거의 일과 현재를 서로 충돌시켜 불화를 키우면 미래를 밝게 만들 수 없다. 협회의 각종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단합에 필요한 조치를 앞장서서 실천해야 한다. 이래야 좋은 단체다.

▶협회의 '희망 사업'들 대부분이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은 사고가 엇비슷한 사람들끼리 간담회나 대책회의를 가지기 때문이다. 특정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끼리 회의를 반복하면 본래의 취지가 엉뚱하게 변질된다. 바로 집단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다. 제2 제3의 의견을 수용하지 못한 채 편을 갈라서 배척하면 성공 확률이 그만큼 줄어든다. 협회 집행부의 생각이 한정되고 편중되면 제자리에 머무르는 것은 숙명이다.

한겨울 맹추위를 견디며 새봄에 활짝 핀 꽃들도 거의 대다수가 10일을 넘기지 못하고 낙화한다. 피기는 어려워도 순식간에 지는 것이 세상 이치다. 협회가 회원의 발전을 위해 사심 없이 공정하게 대인의 자세로 운영되길 기대한다. 권불십년이다.

/ 허선



中 알리바바, 삼성•구글•메타에 도전장!

중국 알리바바가 근래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글라스 대전에 참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초 중국 현지의 관련 매체들은 '알리바바가 삼성전자•구글이 협업해 선보일 스마트글라스의 출시 전에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올해 2분기 내로 자사의 스마트글라스를 공개할 것'이라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자체 대형 언어모델인 '첸원'을 탑재한 스마트글라스 '쿼크 AI 글라스'를 중국에서 우선 선보인 알리바바가 2026년 새해에 이보다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모델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특허등록번호
10-2342017
항균코팅
황색포도상구균 99.9% 차단
녹농균 99.9% 차단

중굴절
UV블루라이트 차단
420렌즈 사용!

since 1984
Guardian



야간운전과 골프장에서 최고 성능을 자랑하는 **'가디안'**

항균 처리로 눈 건강까지 지킵니다!

가디안렌즈 진품 구별법

- ☑ 안경렌즈에 표시된 입김마크 'Guardian'을 확인하세요.
- ☑ 빨간색의 항균 스티커를 확인하세요.
- ☑ 안경렌즈 봉투에 적힌 'Guardian 가디안' 브랜드를 확인하세요.

가디안렌즈의 항균 코팅 처리… 유사품에 속지 마세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

- 녹농균/황색포도상구균 99.9% 차단
  -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검사 통과 (특허등록번호 10-2342017)

안경렌즈 한 장도 철저하게 검사!

- 가디안 항균렌즈는 낱벌도 개인맞춤으로 생산합니다.
- 가디안 항균렌즈는 봉투에 출고날짜를 표기하며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 가디안 항균렌즈는 평면(PL)만 여벌 공급합니다.

생산범위

- 야간 운전용 항균렌즈 Y2
- 골프 전용 항균렌즈 K3
- UV 청광 화이트 항균렌즈

젠틀몬스터 카피 의혹, 블루엘리펀트 대표 구속

젠틀몬스터 디자인 권리 침해 따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조치

젠틀몬스터의 매장 인테리어와 안경 등을 모방한 혐의로 논란을 일으켰던 블루엘리펀트사의 대표가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젠틀몬스터의 디자인 권리를 무단 침해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블루엘리펀트의 대표 최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간 '제2의 젠틀몬스터'로 불리며 고속 성장을 이어가던 블루엘리펀트가 결국 데드카피라는 불명예를 안으며 구속된 것. 다만 이번 결정은 유무죄를 가리는 최종 판결이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서울 명동의 블루엘리펀트 쇼룸 전경.

이날 대전지원의 영장 전담인 송선양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염려 ▶사안의 중대성 ▶보충 수사의 결과 반영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젠틀몬스터 측이 제시한 3D 스캔 분석 결과 일부 제품의 경우 99% 이상 유사성을 가지는 등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가 소명됐고, 따라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본 것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1월의 첫 번째 영장 청구는 기각됐으나 검찰의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9일 재청구된 영장은 받아들여진 것이다.

한편 젠틀몬스터의 운영사인 아이아이컴바인드 측은 블루엘리펀트 대표의 형사 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 디자인 무효심판 등 민·형사상의 법적 절차와 더불어 피해 보전을 위한 가압류 조치를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 승무원의 안경 착용 허용

안경 착용 자율에 맡기기로 지침 변경… 업무에 지장 주는 안경은 제한

향후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에서도 안경을 착용한 승무원을 만나게 될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10일부터 객실 승무원의 안경 착용을 자율에 맡기는 방식으로 내부 지침을 변경했다고 발표했다. 국내에서 성인의 경우 안경 착용률이 50%를 훌쩍 넘는 상황을 마냥 외면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동안 항공업계에선 승객을 응대하는 서비스 직무의 특성과 비상 상황을 고려해 안경 및 산소마스크 착용을 금기시해 왔다.

그러나 이제 승무원도 비행 근무 중 안경 착용이 허용됐는데, 다만 기내에서의 파손이나 분실 가능성에 대비해 여분의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등 대체 교정 수단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또한 유니폼과 어울리는 단정한 형태가 원칙으로 과도하게 눈에 띄는 색상이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장식이 많은 컬렉션은 여전히 제한키로 했다.



한편 국내 항공사의 경우 아시아나항공은 2013년, 제주항공은 2018년부터 승무원의 안경 착용을 허용해 왔다. 해외 항공사들의 경우 미국의 델타항공, 유나이티드항공, 영국의 브리티시항공 등은 회사 설립 초기부터 안경 착용을 허용했고, 독일의 루프트한자, 홍콩의 케세이퍼시픽 등은 2000년대 초반부터 안경 착용을 전면 허용해 왔다. 문의 1588-2001

카카오, 오픈 AI 이어 구글과 파트너십

AI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글라스 개발사와 협력키로 합의… 스마트글라스 시장 진출 잰걸음

㈜카카오(대표 정신아)가 차세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안드로이드 기기에서의 사용자 경험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구글과 협력한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번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안드로이드 확장현실(XR) 기반의 AI 글라스용 사용자 경험과 최신 AI 기술이 접목된 안드로이드 모바일 경험을 개발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합의했다.

이는 카카오가 AI 생태계 확장을 위해 지난해 오픈 AI에 이어 구글과도 손을 잡은 것으로, 온디바이스 AI뿐만 아니라 구글이 개발한 AI 특화 반도체 칩 '텐서 처리 장치(TPU)' 인프라 활용과 차세대 웨어러블 기기인 AI 스마트글라스까지 협력 범위를 넓힌 포괄적 동맹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메시징과 통화 등 실생활과 밀접한 시나리오에서 핸즈프리 방식과 자연어를 통한 상호작용으로 구현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카카오는 온디바이스(On-device) AI 서비스가 안드로이드 모바일 기기에서 원활하게 구동될 수 있도록 구글과 최적화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는데, 그 시작은 '카나나 인 카카오톡'이 될 예정이다.

카나나 인 카카오톡은 카카오의 자체 개발 경량 AI 모델을 활용한 서비스로, 이용자가 도움이 필요한 순간을 알아차리고 먼저 말을 거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10월부터 베타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오는 1분기 중 안드로이드 버전을 포함해 정식 출시될 예정이다.

카카오의 정신아 대표는 "이번 파트너십은 AI가 이용자들의 일상에서 보다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양사의 기술적 강점을 결합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며 "자사는 구글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용자들에게 한층 진보된 AI 기반의 일상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글 아시아·태평양의 캐런 티오 부대표는 "카카오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맺어 기쁘다"며 "이번 협력은 구글의 최신 AI 기술과 한국 소비자들을 향한 카카오의 입증된 혁신 역량을 결합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우리는 모든 한국 사용자들에게 유용한 AI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국내 모바일 메신저 시장을 평정한 카카오가 이번 구글과의 협력으로 AI 기반의 스마트글라스 등 차세대 디바이스 시장에서도 주도권을 쥘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의 1899-1326

백내장 실손보험 환자 측 '승소'

광주지방법원, 기저질환 환자의 입원 인정… 보험사에 실손보험금 지급 명령

지난 몇 년간 실손보험과 관련한 백내장 수술의 입원비 지급 재판이 그동안의 사례와 반대로 환자 측이 승소하는 판결이 내려져 주목받고 있다.

지난 15일 광주지방법원은 삼성생명에 대해 환자에게 백내장 수술의 입원비 등 630만원을 실손보험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환자 측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 담양군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이다.

지금껏 대법원의 잇따른 보험사 승소 판결 이후 이뤄진 하급심 판결에서 대부분 보험사가 승소했는데, 이번 소송은 판결이 나온 이후 환자와 삼성생명 사이 합의로 취하돼 그대로 확정됐다.

보험업계에선 이를 두고 '극히 이례적인 결과'라는 반응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22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백내장 치료 입원비를 실손보험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번에 광주지원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판결의 근거는 수술 이전의 의무기록과 환자의 기저질환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원이 의사의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원고가 백내장 수술 이전에도 꾸준히 홍채섬모체염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점 등에 비춰봤을 때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즉 단순한 백내장 수술이 아닌 입원을 통해 수술이 이루어진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향후 백내장 수술의 실손보험금 청구 소송은 지금보다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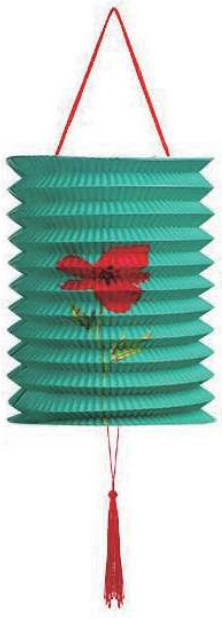
日脳今昔物語

7억개의 눈을 잡아라!… 중국, 근시 특수 '톡톡'

정부의 아동 • 청소년 근시 억제 정책에 안경시장 고성장… 단순한 교정 넘어 헬스케어 시장으로 급전환







이제까지 중국의 안경원이 단순히 '시력을 측정하고 안경테를 고르는' 곳이었다면, 앞으로는 최첨단 광학기술과 인공지능(AI) 기반의 검안 장비가 즐비한 '눈 건강 클리닉'으로 변모·정착하고 있다. 중국 내 근시 인구가 7억명에 육박하고, 특히 청소년 근시율이 국가적 위기 수준에 빠지면서 중국 안경업계의 지형도가 '마이오피아(Myopia; 근시) 억제 렌즈'를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청소년 근시에 속 타는 중국… 안경계는 기회

최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 아동·청소년의 전체 근시율이 50%를 상회하며, 심지어 고등학생은 80%가 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18년 8월 중국 당·국무원 기관과 보건·교육부처가 학생 시력 보호계획 및 정책 초안을 마련할 때, 시진핑 주석은 "아이들의 눈 건강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직접 언급하며, 이에 대한 강력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이후 정부의 '전국 안 건강 계획(2021~2025)'에 따라 학교 내 각종 형광등의 조도 개선, 야외활동 시간의 강제 확보 등 규제가 강화되자 안경업계는 이를 '기능성렌즈 시장의 대중화'를 이루는 기회로 인식했다. 즉 단순한 시력교정을 넘어 근시 진행 자체를 늦추는 고부가가치 안경렌즈의 시장이 활짝 열린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국내산과 외국산 안경렌즈의 패권 다툼 치열

현재 중국 시장에선 글로벌 브랜드의 '기술력'과 로컬 브랜드의 '애국 소비(궈차오)'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그중 프리미엄 안경렌즈 시장을 선점한 것은 독일의 자이스와 프랑스의 에실로인데, 에실로는 '스텔리스트' 렌즈에 적용된 HALT 기술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렌즈 표면에 배치된 1,021개의 마이크로렌즈가 망막 앞에 신호를 생성해 안구 성장을 억제하는 방식이다.

일본의 호야도 DIMS(근시 디포커스) 기술을 적용한 '마이오스마트'로 학부모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또 이에 맞서서 중국의 로컬 브랜드 선두주자인 밍위에(明月) 렌즈의 기세도 매섭다. 이들은 '중국인의 안구 구조와 독서 습관은 서양인과 다르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중국 맞춤형 렌즈'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로컬 브랜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공격적인 유통망 확장을 통해 외국산 브랜드가 장악했던 고기능 시장의 점유율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불경기에 10명 중 7명이 100만원대 안경 구입

주목할 점은 소비 행태의 변화다.

지난날 중국 소비자들에게 안경은 단순한 소모품이었으나 현재 근시 억제렌즈는 일종의 '헬스케어 투자'로 인식하고 있다. 특수 설계가 들어간 기능성렌즈는 일반 렌즈보다 적어도 5~10배 정도 비싸지만, 외동 자녀를 위해 지갑을 여는 이른바 '소황제'의 부모들에게 그 같은 가격은 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실제로 상하이의 한 대형 안경체인 관계자는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최근 방문하는 학부모 10명 중 7명은 일반렌즈 대신에 근시 억제 효과가 검증된 프리미엄 제품을 찾는다"며 "이로써 렌즈와 안경테, 검안 비용을 합쳐 5천위안(약 105만원)이 넘는 고가 패키지가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다"고 전했다.

향후 중국 안경시장은 인공지능과 바이오가 주도 예상

현재 안경계 전문가들은 향후 중국 안경시장이 AI 검안 시스템 및 디지털 헬스케어와 더욱 밀접하게 결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모니터링해 근시 위험을 알리는 앱이나 안경과 연동되는 시력훈련 디바이스 등이 속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안경산업협회의 관계자는 "이제 중국의 안경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고 진보된 시장이 됐다"며 "근시 억제 기술의 고도화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향후 10년 이상 중국 안경업계를 이끌 핵심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자료출처 :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교육부 공식 발표, 아이루이 컨설팅, 36Kr 경제 분석 보고서 등 종합



중국 상하이의 한 안경원.



중국 단양의 한 안경렌즈 생산공장 내부.



중국 한 안경원 내부에 설치된 밍위에 안경렌즈 관련 선전판.



밍위에 안경렌즈 관련 캠페인.

Neon
눈이 자유로운 세상

눈(眼)이 너무 좋아하는 '네온 RGP렌즈'
안경사 전문가다움은 네온RGP 처방입니다.



네온 RGP 렌즈 정기교육

내용 : RGP렌즈 초급자 교육
일정 :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시간 : 오전 11시~오후 4시
장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04(서초동, 국제전자센터)
15층 1524호(3호선 남부터미널역 3번 출구)
교육 문의 및 신청 1644-2806

업계 유일하게 자동 처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네온TEC.
저희 네온TEC는 첨단 RGP렌즈의 정확한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GET IT ON Google Play
Download on the App Store

자동 처방 프로그램 이용방법

네온렌즈 검색 → 어플 설치 → 자동처방 실행

주문전화 | 1644-2806

제25회 아시아•태평양 검안학술대회 제주서 4월 20일 개최

아시아 • 태평양 학술 교류와 미래 전략 집중 논의… 참가 안경사에겐 현장 보수교육 4평점 인정

제25회 아시아•태평양 검안학술대회(APOC)가 오는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해비치 호텔&리조트 제주에서 개최를 앞두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아시아•태평양검안협의회와 ㈔대한안경사협회가 주최하며, 국내 안경사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검안사, 학계•업계 관계자 등 약 600여명이 참여해 학술 교류와 상호 연대하는 축제의 장이 될 전망이다.

'모두가 누리는 눈 건강' 주제로 개최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Eye Care for All: Equity, Access, and Innovation in a Changing World(모두가 누리는 눈 건강: 지속가능한 안 보건을 위한 혁신과 전략)'로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과 라이프스타일 속에서 시 건강이 더욱 중요한 보건 의제로 부각되고 있는 흐름을 반영했다. 현재 안광학 분야의 핵심 의제인 ▶근시 유병률 증가에 따른 근시 억제 전략 ▶디지털 시대의 다양한 시 기능 문제와 훈련 ▶콘택트렌즈 처방의 다양화 ▶기능성 안경렌즈의 효율성과 적용 방안 등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DIMS 렌즈 공동개발자로서 근시 억제 분야에 많은 연구 업적을 남긴 Prof. Chi-ho To, 세계검안협의회 회장이자 영국 맨체스터 로열 안과병원의 검안사인 Dr. Cindy Tromans, 소프트 콘택트렌즈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강연자이자 「Contact Lens Practice」의 저자인 Prof. Nathan Efron, 시각장애 및 눈 건강에 따른 안전분야에 대해 세계적인 석학 연구자인 Prof. Joanne Wood, Dr. Hu Liang과 Dr. Daniel Yu Cui는 안과의사로서의 근시 관리에 대한 임상적 접근법 등 안 광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와 초청 연사들이 최신 연구 성과와 임상 경험을 나누고, 워크숍과 패널 토론을 통해 국제 교류의 폭을 넓혀갈 계획이다.

국내 연사로는 대구가톨릭대학교 추병선 교수의 '노안에 따른 시기능 변화'에 이어 다양한 산업체 연구자들이 최근에 적용되고 있는 기술을 강연할 예정인데, 이번 APOC은 지역을 초월한 협력과 연대를 실현하는 중요한 장으로 학술적 교류를 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 간의 연구•정책 협력으로 이어지는 다채로운 부대 프로그램과 네트워킹이 진행된다. 대안협의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는 안광학 분야가 당면한 주요 현안과 해법을 폭넓게 다룰 예정이며, 아시아•태평양 국가 간의 지식과 정보 공유는 물론 정책 및 연구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학술대회 참가자의 사전등록을 받고 있으며, 초록 접수도 3월 15일까지 APOC 공식 홈페이지(https://koacs.com/) 또는 대안협 홈페이지 메인 배너(https://www.optic.or.kr/)를 통해 가능하다. 문의 02)756-1001

특별 연사



Prof. Chi-ho To

강연제목 Myopia Control And Optical Defocus – From Laboratory Research To Clinical Study (근시억제와 광학적 디포커스 – 실험적 연구에서 임상적 연구로의 진화)

안구의 성장은 시각 자극에 의해 조절되는 과정이며, 광학적 디포커스가 동물의 안구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기존 연구를 통해 입증되어 왔다. 본 연구팀은 이러한 광학적 디포커스가 인간의 안구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근시성 디포커스를 유도하는 특수 콘택트렌즈(DISC)를 개발하여 홍콩의 소아를 대상으로 근시 억제 임상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DISC 렌즈는 소아에서 근시성 안구 성장을 유의미하게 지연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이후 광학적 디포커스 원리를 적용한 최초의 안경렌즈인 DIMS 렌즈를 개발하였으며, 임상적으로 약 60% 수준의 안구 성장 억제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후 광학적 디포커스를 이용한 다양한 근시 억제용 렌즈들이 출시되었고, 이들 역시 유의미하고 지속적인 근시 억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광학적 디포커스를 아트로핀 점안 또는 적색광 치료와 병합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병합 요법은 추가적인 근시 억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Dr. Cindy Tromans

강연제목 Eyes to the Future (검안분야의 현재와 미래)

2019년 세계보건기구는 세계 시각장애의 규모와 시력 보건 서비스 접근성에 국가 간 심각한 불평등을 보여주는 세계 시력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본 발표에서는 해당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1차 진료 수준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안질환들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또한 안경사(검안사) 중심의 차 시력 보건 서비스 제공에 있어 직면한 기회와 도전 과제, 특히 1차 보건의료 전문직으로서의 검안사의 법적 인정과 제도적 기반에 대해 논의한다. 나아가 통합적 안과 진료 모델과 디지털 헬스가 향후 1차 시력 보건 서비스 제공 방식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전망하고자 한다.



Prof. Joanne Wood

강연제목 Ocular health and road safety in older adults (고령 운전자의 안건강과 도로 안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운전면허 자격 요건으로 시력과 시야를 일반적으로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한 운전에 있어 어떤 시 기능 요소가 가장 중요한지, 어느 수준에서 시 기능 저하가 운전 수행 능력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지, 그리고 노화와 다양한 안질환 및 시각장애가 안전운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쟁이 존재한다. 본 발표에서는 해당 분야의 최신 및 주요 문헌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운전자의 안전운전과 관련된 눈 건강에 있어서 안경사가 고려하여야 하는 임상적 사항과 적절한 운전 관련 조언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Prof. Nathan Efron

강연제목 Good news! Contact lens wear is intrinsically inflammatory(콘택트렌즈 착용으로 인한 염증반응은 당연한 생리적 과정)

안경사들은 콘택트렌즈 착용 중 발생하는 안구 염증을 미생물 각막염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렌즈 착용과 염증 반응에 대한 다른 기전이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본 발표에서 Efron 교수는 자신의 연구 경력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제기해 질문, 즉 '콘택트렌즈 착용 자체가 본질적으로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질문에 대한 접근은, 합병증이 없는 정상적인 콘택트렌즈 착용 상태가 염증의 임상적 정의와 부차 임상적 정의를 충족하는지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연구 결과, 이러한 모든 기준이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나 콘택트렌즈 착용은 실제로 염증 반응을 관련되어 있음을 입증되었다. 그리고 여기서 '좋은 소식'이 이어진다. 인체에서 염증의 역할에 대한 고전적 및 현대적 개념을 함께 고려해 보면, 콘택트렌즈 착용 시 전안부에 나타나는 만성적이고 부수임상적 염증 상태는 의외로 긍정적인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조직 손상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역계가 외부의 자극에 높은 경계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Prof. Byoung-Sun Chu, PhD, MOptom, FAAO, FIALCE

강연제목 We All Age – Presbyopia Market Never Fades (인류 모두 노안을 경험하며, 노안 시장의 확대는 불변)

전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노안의 유병률은 전례 없는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노안시장은 안 보건 시장에서 가장 지속 가능한 시장 중 하나이다. 본 강연에서는 노안을 단순한 임상적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이며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조명하고자 한다. 본 발표에서는 전 세계 역학적 동향을 검토하고, 안경, 콘택트렌즈, 수술적 교정방법 등 근거리 시력 교정과 관련된 소비자 행동 패턴을 분석한다. 또한 한국 안경사와 광학산업 간의 협력 사례를 소개한다. 궁극적으로 본 발표는 노안 관리가 공중보건적 책임과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기회가 만나는 독특한 접점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Dr. Hu Liang, MD, OD, PhD

강연제목 Optometric Challenges in Refractive surgery (굴절교정 수술 이후 안경광학적 관리의 필요성)

굴절수술은 근시를 교정하고 시각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치료 방법으로 자리 잡았으나, 최적의 수술 결과는 단순히 수술 자체에만 달려있지 않다. 수술 이후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술 전•중•후 전에 걸쳐 안광학적 관리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수술 전에는 광범위한 안광학적 검사와 표준화된 굴절 검사가 치료 목표 설정, 위험도 평가 및 개별화된 수술 계획 수립의 기초가 된다. 수술 중에는 정확한 중심 정렬과 최적화된 수술 파라미터 선택을 통해 고위수차의 유발을 최소화함으로써 시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수술 후에는 조절 상의 변화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저교정 및 과교정, 굴절 회귀를 적시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Dr. Yap Tiong Peng

강연제목 Decoding "Lazy Eyes": How Meridional Anisotropies Shape Children Visual Development (약시 – 비대칭성 난시가 소아시각발달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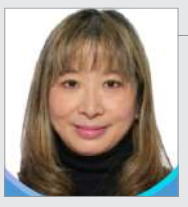
약시는 시각의 신경발달장애로, 난시와 같은 굴절 이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굴절 이상이 정상적인 시각 발달을 어떠한 기전을 통해 방해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구가 진행 중이다. 본 강연에서는 난시 방향에 따른 시각처리 능력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선 비등방성에 관한 최신 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정상적인 시각 발달 과정에 대한 근거와 더불어 약시의 신경학적 기전에 대해 고찰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경생리학적 관점에서 약시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보다 정밀하고 효과적인 치료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Dr. Benita Soltura

강연제목 ncomitant Strabismus: Practical Approaches to Diagnosis and Management (비공동성 사시: 진단과 치료를 위한 실용적 접근)

비공동성사시는 안 보건 전문가에게 진단과 관리 측면에서 독특한 도전과제를 제시한다. 공동성 편위와 달리, 주시 방향에 따라 사시각이 변동하는 특성으로, 보다 면밀한 임상 평가와 맞춤형 치료 접근이 요구된다. 본 세션에서는 임상 경험과 정시학원리를 바탕으로 비공동성사시의 진단 및 관리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간결하면서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상적 징후의 인지, 공동성사시와 비공동성 사시의 감별, 그리고 안구 운동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진단 기법의 적용이 포함된다. 또한 프리즘 처방, 정시훈련, 그리고 수술적 치료를 위한 의뢰까지 다양한 관리 전략을 실제 임상 환경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Dr. Helen Eng, OD, FAAO

강연제목 Color Vision Deficiency – Diagnosis and Management(색각이상에 대한 진단과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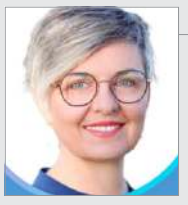
색각이상은 남성의 약 8%, 여성의 약 0.5%에서 발생하며, 일상생활 수행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직업 선택의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 본 사례 중심세션은 안경사(검안사)에게 CVD의 진단 및 관리에 활용되는 최신 임상도구와 기술에 대한 업데이트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션에서는 Handy-Rand-Ritter 검사와 같은 전통적인 검사법부터, 최신 모자이크 색각 검사에 이르기까지 과거 및 현대의 진단 방법을 폭넓게 검토한다. 최근 색각이상에 대한 관리는 특수 색상 필터의 적용, 맞춤형 착색 콘택트렌즈, 그리고 색 구분 능력 향상과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이 포함된다. 또한 AI 기반 애플리케이션과 AI 스마트 안경과 같은 인공지능 기술의 통합은 적절한 사용을 전제로 실시간 색상 인식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대안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본 세션은 임상에서 CVD 관리를 위한 최신 지식과 자원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Dr. Jeffrey Leung

강연제목 Developmental Dyslexia and Optometric Management (난독증의 발생과 안경광학적 관리)

발달성 난독증은 정확하고 또는 유창한 단어 인식과 해독 능력의 어려움을 특징으로 하는 특정 학습장애다. 전 세계적으로 약 7.1%의 유병률을 보이는 가장 흔한 신경발달장애 중 하나로, 적절한 조기 진단과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학업 성취도와 자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오랫동안 음운 인식의 결손이 발달성난독증의 핵심 원인으로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그 병인이 보다 복합적이며, 인지적 및 감각 처리의 문제들이 상호작용하는 다면적 특성을 가진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시각과 관련된 이상은 폭넓게 연구되어 왔다. 최근에는 빠른 시각 정보와 시간적 정보를 처리하는 경로의 기능이상이 읽기 어려움에 기여한다는 시각 대세포 결손 가설이 제기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발달성 난독증에 대한 현재의 이해를 정리하고, 관련된 시각 기능 이상에 대한 최신 연구동향을 소개한다.



Meredith Graham

강연제목 : Binocular Vision Masterclass – Vision Problems and Solutions (양안시 마스터 클래스 – 시각이상 종류에 따른 처치)

Meredith Graham 연사는 호주 퀸즐랜드공과대학교에서 검안학 학사(우등)를 취득한 검안사로 현재 행동검안학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기업형과 개인 안경원에서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남편인 Paul Graham 검안사와 함께 골드코스트에서 안경원을 운영하고 있다. 오스트랄라시아 행동검안학회 펠로우로서 소아의 시각 관리, 시기능 훈련, 신경시기능 재활을 주요 관심 분야로 삼고 있다.



Paul Graham

강연제목 Binocular Vision Masterclass – Successful Vision Therapy (양안시 마스터 클래스 – 성공적인 시기능 훈련)

Paul Graham 연사는 검안학 학사(우등)를 취득한 검안사로 30년 이상 신경시기능 검안과 시기능 훈련, 소아 검안 및 근시 관리 등 복합적인 시각 문제를 중심으로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고 있다. 특히 조절 및 양안시 기능 이상에 대한 기능적 시각 관리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그는 오랜 기간 검안사를 대상의 보수교육에도 활발히 참여해 왔다. 이번 강연에서는 성공적인 시기능 훈련의 임상적 접근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그 효과와 가능성을 소개할 예정이다.



Dr. Daniel Yu Cui, MD, PhD

강연제목 Myopia Management Protocol: Evidence-based Clinical Approach (근시관리 프로토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임상적 접근법)

현재 중국에서 근시 관리는 가장 중요한 임상 실무 분야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본 발표자의 클리닉의 프로토콜은 근거에 기반한 의학적 접근을 원칙으로 하며, 평생 시력 관리의 요구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통합적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주요 구성 요소로는 유전적 검사, 위험도 평가, 안구 생체계측 검사, 그리고 개인맞춤형 관리 계획이 포함된다. 본 클리닉에서 적용하고 있는 프로토콜은 정밀한 치료 전략을 가능하게 하고, 근시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기존의 소아근시의 안광학 진료 패러다임을 혁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Dr. Carmen Abesamis-Dichoso

강연제목 Orthokeratology in Contemporary Myopia Management: Efficacy, Combinations, and Care Pathways (OK렌즈와 병합치료를 통한 근시억제 방법에 대한 효율과 관리법)

지난 10여 년간 근시 관리는 약물적 치료 중심에서 광학적 방법으로 그 범위가 확장되어 왔다. 그 중 Orthokeratology는 주요한 치료 방법으로 부상하였으며, 다양한 렌즈 디자인이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근시 진행 억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무작위 대조 연구와 메타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아트로핀 병합 치료를 포함한 다른 근시 억제 방법들과 비교했을 때 OK렌즈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리뷰한다. 또한 환자 선정 기준, 피팅 시 고려사항, 그리고 보호자와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대한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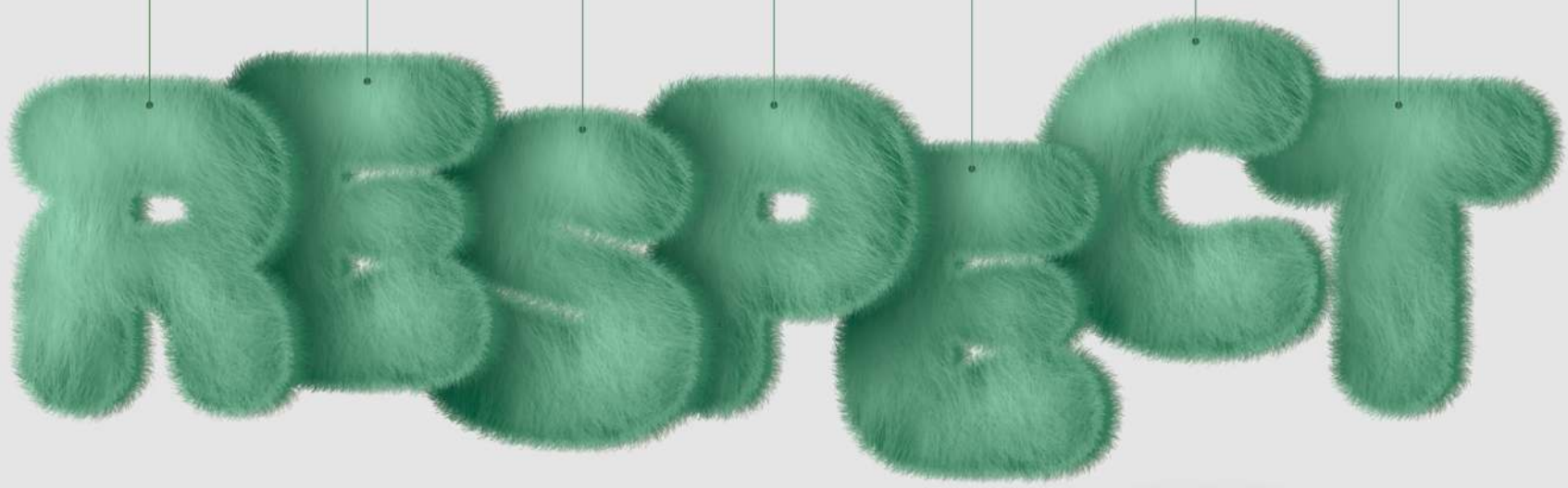
Ding Yi

강연제목 온라인-오프라인(O2O)과 소셜미디어를 통한 안경 비즈니스 마케팅 전략

검안 및 안경산업은 디지털 참여 확대, 환자 기대 수준의 변화, 그리고 예방 중심 안건강 서비스 수요 증가에 힘입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성장의 코드'를 제시하며, 디지털상에서 형성된 인지도와 실제 오프라인 임상 경험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를 다룬다. 이어 'EPIC 블루프린트'를 소개하며, 지속 가능한 현대 검안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4단계 실행 프레임 워크를 제안한다. 또한 기존의 제품 판매 중심 모델에서 벗어나, 평생 시각 건강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는 전략적 변화, 즉 '가치의 진화'를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플라이휠 효과' 개념을 통해, 임상적 우수성 • 환자경험 • 전략적 혁신을 통합함으로써 장기적인 환자 성과와 기관 성장을 동시에 강화하는 자기강화형 안건강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안경존중 irespect.co.kr

WINC
안경존중 X 윙크렌즈



RESPECT EYES
RE:SPEC EYEWEAR

가맹상담신청

안경존중 상권 개발 지점

- 송파점 20평대 (예상 매출 4천만 원)
- 보라매점 20평대 (예상 매출 3천만 원)
- 은평점 30평대 (예상 매출 8천만 원)
- 청량리점 20평대 (예상 매출 4천만 원)
- 서초점 40평대 (예상 매출 5천만 원)
- 동서울점 40평대 (예상 매출 3.5천만 원)
- 건대점 50평대 (예상 매출 4천만 원)

안경존중 가맹상담 | **010-8127-9938** | www.irespect.co.kr

렌즈미, 한 달용 '축고정 렌즈' 전격 출시

두 가지 라인으로 그래픽 직경과 컬러 다양하게 출시… 유통 혁신으로 기다림 없이 즉시 구매 가능



루미문 버터브라운



글림엣지 볼드브라운



루미문 버터브라운



루미문 미스트그레이



루미문 헤이즈쵸코



루미문 페일블루



글림엣지 볼드브라운



글림엣지 볼드그레이

㈜렌즈미(대표 송계진)에서 축고정 렌즈 '루미문'과 '글림엣지'를 출시했다.

렌즈미는 기존 축고정 렌즈 시장에서 나타났던 한계를 보완하는 동시에 축고정 구조의 장점을 더욱 강화해 트렌드를 반영했다.

출시 기념 '1+1'런칭 프로모션 전개

이번 축고정 렌즈는 한 달 착용 렌즈로 그래픽 직경 13.4㎜의 루미문과 13.7㎜의 글림엣지의 두 가지 라인으로 출시됐다.

루미문은 버터브라운, 미스트그레이, 헤이즈쵸코, 페일블루 총 네 가지 컬러로 구성되고, 글림엣지는 볼드브라운과 볼드그레이의 두 가지 컬러로 출시되어 보다 큰 그래픽 직경을 통해 선명하고 또렷한 아이 메이크업과 연출이 가능하다.

특히 기존의 축고정 렌즈 시장은 결제 후에 일정 기간을 기다리는 불편함이 많았으나, 렌즈미는 전 매장에서 즉시 구매가 가능하도록 유통 구조를 구축해 소비자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렌즈 소재도 퍼스퍼릴콜린과 실리콘하이드로겔을 결합해 수분 유지력과 착용감이 뛰어나고, 제조 공법도 프리즘 밸러스트를 적용해 렌즈 하단의 무게 중심이 안정적으로 설계·생산되었다.

현재 루미문과 글림엣지는 한 팩(3만원)을 구매 시 한 팩을 추가 증정하는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며, 동일 가격대에서 제품, 컬러, 도수 등 교차 선택이 가능하다.

문의 1577-2160

LENSME

"독보적인 프리미엄 렌즈샵 렌즈미
지금이 신규 오픈 최적의 기회!"

인테리어 비용 파격지원





전속모델 고윤정

신규 가맹점에 드리는 혜택

최대 1,000만원 상당의	인기있는 렌즈미	전문적인 마케팅을 통한
오픈이벤트	**PB렌즈 1200만원**	**온/오프라인**
전폭 지원	위탁 지원	홍보 지원

우선 오픈 지역

서 울	명동 | 구로디지털단지 | 수유 | 신논현 | 오목교 | 이수 | 압구정 | 마곡 | 상암 | 왕십리 | 여의도 | 이태원
경 기	위례 | 평촌학원가 | 미금 | 모란 | 동탄 | 철산 | 하남 | 미사역
강 원	강릉 | 동해
충 청	서산 | 세종

가맹문의 김진우 부장 010-9487-9045 | 김동훈 과장 010-6336-9849

ESSILOR INSTRUMENTS IS INNOVATION



ES 700 + TCB 800



ES 800M + TCB 800



AKR - 800



NEKSIA Ver 2 + TCB

ESSILOR INSTRUMENTS



VisionR-700



Delta200+TESS



MPH 150



APH - 550

ESSILOR INSTRUMENTS

ESSILOR 한국총판

(주)신일광학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35, 2층 207호 (회현동 1가, 남산롯데캐슬아이리스)

상담전화 : (02)752-2325, (02)756-0876 Fax.(02)318-4007

INNOVATION TO UNLOCK YOUR POTENTIAL



VX-110



VX-40



PLM - 8000



VX-36



PDR - 7000



VX-65



PRK - 9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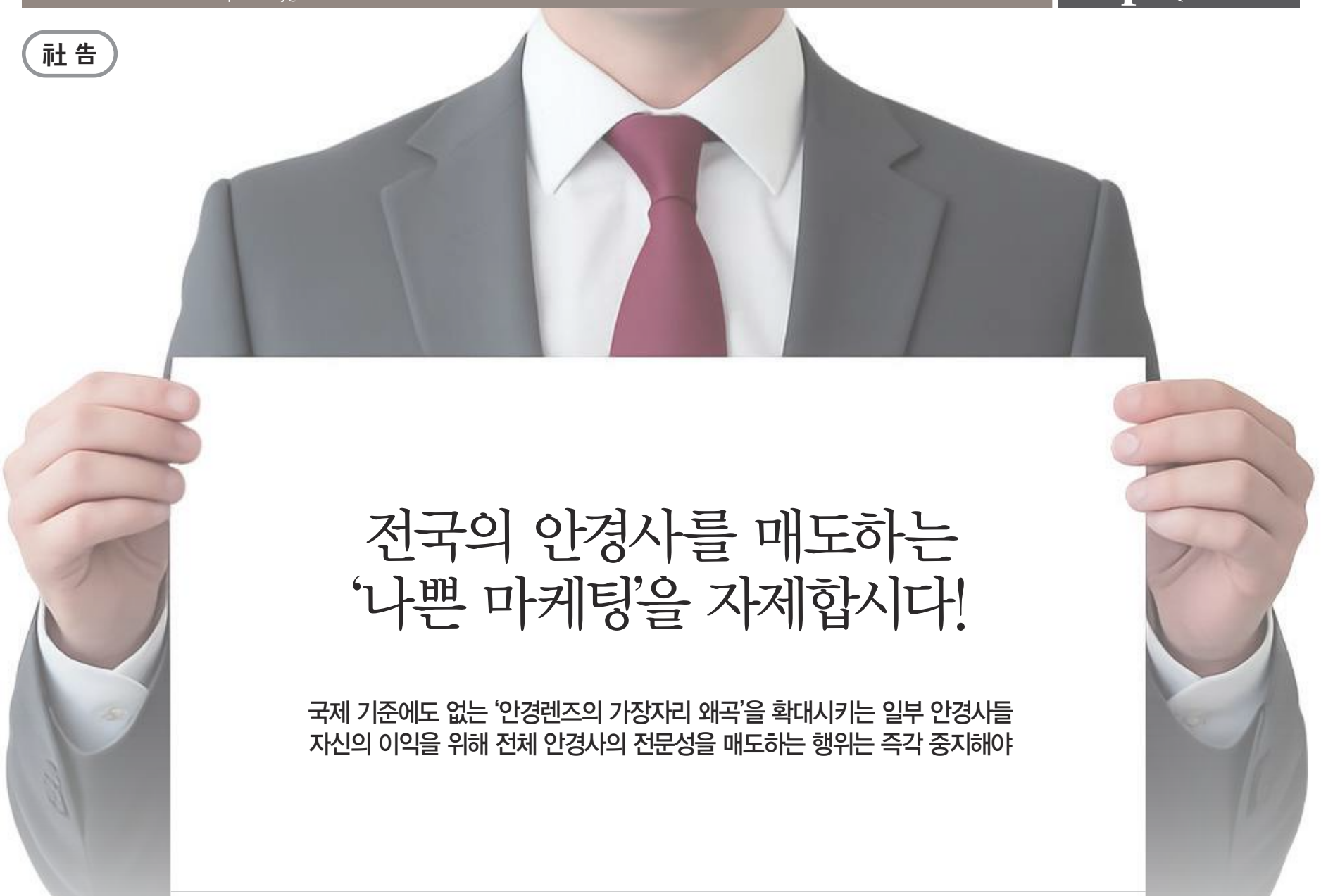


VX-25

VISIONIX POTEC

VISIONIX POTEC (주)신일광학

社 告



전국의 안경사를 매도하는 '나쁜 마케팅'을 자제합시다!

국제 기준에도 없는 '안경렌즈의 가장자리 왜곡'을 확대시키는 일부 안경사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체 안경사의 전문성을 매도하는 행위는 즉각 중지해야

안경렌즈 가장자리의 미미한 왜곡은 소재 특성 때문

일부 극소수 안경사들이 자신의 영업 이익을 위해 안경렌즈의 미미한 왜곡을 문제화하며 전체 안경사의 전문성을 폄훼하는 그릇된 행위가 그치지 않고 있다. 일부 극소수 안경사들이 시력에 영향에 영향이 없는 안경렌즈 가장자리의 미미한 왜곡을 마치 '작은 바늘을 큰 몽둥이'처럼 부풀리는 영업으로 전체 안경사들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

특히 자신의 안경렌즈 처방과 조제가 국내에서 최고인 것처럼 과대 선전하는 안경사 유튜버인 Y, E, J 등은 안경렌즈의 미미한 왜곡 모습을 크게 확대해 마치 고객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처럼 공포감을 심으며 전체 안경사를 폄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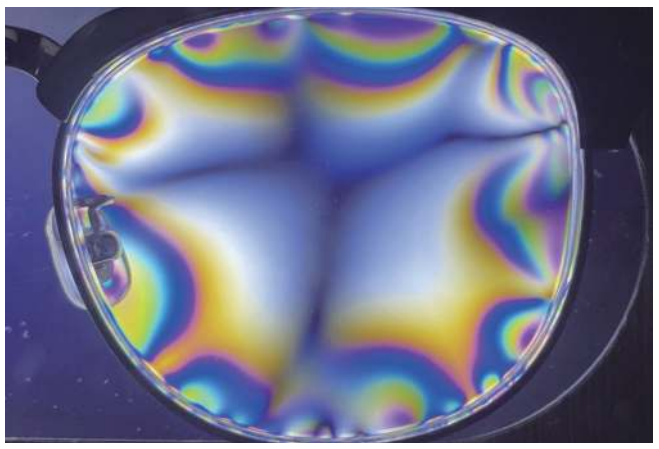
그러나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CR 39 플라스틱 안경렌즈'는 소재 특성상 유리렌즈와 달리 나사를 조일 때 렌즈 가장자리에 미세한 왜곡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 같은 안경렌즈 가장자리의 미세한 왜곡은 시력이나 시야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플라스틱 안경렌즈를 조제할 때 나사를 조이면 부득이 미미한 왜곡이 생긴다.

세계 모든 안광학 논문에도 '안경렌즈 왜곡 기준' 전무

현재 전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CR 39 플라스틱 안경렌즈는 1947년경 개발되어 1980년대부터 상용화된 후 문제점이 전혀 없는 렌즈로 평가받고 있다. 즉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렌즈가 'CR 39 플라스틱 안경렌즈'일 만큼 안경렌즈 가장자리의 미미한 렌즈 왜곡이 눈과 시력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

그 결과 안경렌즈의 왜곡은 국내외의 그 어떤 안광학 논문에서조차 찾을 수 없을 만큼 안전하다. 만약 안경렌즈의 왜곡이 인체의 시력이나 도수에 변화를 일으켰다면 당연히 안경렌즈 조제의 기준이 생겼을 것이다. 그만큼 시력과 도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안경렌즈 가장자리의 왜곡이다.

더구나 플라스틱 안경렌즈는 안경테에 장착할 때 나사에 적당한 힘을 주지 않으면 안경테에서 렌즈가 분리될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 안경테에서 빠지지 않도록 적당한 힘으로 조이는 것이 올바른 안경렌즈의 조제다. 일부 극소수 안경원에서는 간혹 렌즈 조제 시에 실수로 렌즈가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안경테와 렌즈를 순간접착제로 붙이는데, 이것이 잘못된 안경렌즈 조제인 것이다.



유튜브에서 안경렌즈의 가장자리 왜곡 모습을 과도하게 확대해 소비자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는 사진이다. 이 영상에서 자신이 조제한 안경렌즈는 왜곡이 전혀 없다며 자신이 최고 전문가인 것처럼 소개하고 있다.

더구나 플라스틱 안경렌즈는 자신들이 조제한 안경도 왜곡검사기로 검사하면 미세한 왜곡이 생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자신이 조제한 안경은 왜곡이 전혀 없고, 여타 안경사들이 조제한 안경은 심한 왜곡으로 눈을 헤치는 것처럼 매도하는 나쁜 마케팅은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결국 안경원의 성공 운영은 검안, 조제, 피팅, 제품 구비, 서비스 등 자신만의 오랜 노력이나 노하우, 또 열정으로 이룩하는 것이지 타인의 실력을 매도하면서 이룩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일반 안경사의 전문성을 매도하는 행위는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2026 DAEGU INTERNATIONAL OPTICAL SHOW

DIOPS



2026 대구국제안경전

4. 1 WED — 4. 3 FRI

exco 서관 1, 2홀 | WEST WING 1, 2 HALL

사전 참관등록 바로가기

주최 DAEGU 대구광역시 DAEGU METROPOLITAN CITY 주관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KOREA OPTICAL INDUSTRY AGENCY 후원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FOREIGN NEWS

정리_허정민 기자



中 상하이광학전 3월 2일 개막

베이징국제광학전(CIOF)과 함께 '중국 양대 광학전'으로 유명한 상하이국제광학전(SIOF)이 오는 3월 2일부터 4일까지 상하이세계엑스포전시센터에서 개막된다. 지난해 971개 참가업체, 14만명 이상의 참관객 등 압도적인 인기를 과시한 SIOF는 올해엔 '고급화·지능화·지속 가능한 발전 개념'을 메인 테마로 내세우고 있다.

키오스크형 '아이봇' 검안기에 설왕설래

AOA, 안과 검진의 위험성 경고… 개발사, '아이봇은 예비 도구일 뿐'

인공지능(AI) 기반의 셀프 시력검사 키오스크인 Eyebot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미국검안사협회(AOA)는 안과 전문지 「아이즈 온 아이케어」에 발표한 기고를 통해 아이봇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AOA는 '아이봇에 적용된 기술은 소비자들에게 이를 통해 종합적인 안과 검진을 대체할 수 있다고 오해하게 만들 수 있고, 시력검사에 사용되는 자동화된 용어가 처방전 확인과 종합적인 안과 검진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환자들이 진찰이 필요한 질환을 쉽게 간과할 위험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아이봇 개발사는 '아이봇은 종합적인 안과 검진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환자들이 전문 진료를 받도록 안내하는 예비 또는 편의형 선별 도구일 뿐'이라며, 아이봇의 기능을 폄훼하는 단체나 개인에게는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펜실베이니아州의 한 쇼핑센터 내에 설치된 아이봇.

中 원저우광학전, 신규 테마관 첫선

바이어와 업체의 연결 위해 '뉴 비전 호라이즌 • 골든 브랜드 갤러리아' 도입

중국 '원저우국제광학전(WOF)'이 오는 5월 8일부터 10일까지 개최를 앞두고 있다. 이번 WOF에선 글로벌 바이어와 공급업체 간의 연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두 개의 새로운 특화 구역인 '뉴 비전 호라이즌'과 '골든 브랜드 갤러리아'를 도입·운영할 예정이다.

새롭게 공개되는 뉴 비전 호라이즌은 신제품 컬렉션 런칭을 위한 전용 플랫폼으로, 단순한 상품 진열에서 벗어나 '라이브 패션쇼'와 '정적 전시 공간'을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선정된 전시업체들은 패션쇼를 통해 최신 컬렉션을 모델의 워킹과 함께 선보이며, 바이어들은 제품의 착용감과 실시간 움직임을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쇼가 종료된 후에는 별도로 마련된 쇼케이스 공간에서 소재, 마감 처리, 수공예 디테일 등을 근거리에서 직접 검수할 수 있어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도입되는 골든 브랜드 갤러리아는 엄선된 광학 브랜드를 전시장 내 특정 섹션에 집중 배치한 브랜드 통합 전시관이다. 기존에 여러 부스에 산재해 있던 브랜드들을 하나의 공간으로 집약시킴으로써, 바이어들은 동선의 낭비 없이 각 브랜드의 스타일과 라인업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WOF 사무국의 관계자는 "골든 브랜드 갤러리아는 바이어들이 각자의 시장 요구에 부합하는 잠재적 파트너를 신속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계된 효율 중심의 전시 모델"이라며 "올해 WOF는 새롭게 추가된 테마관들을 통해 단순한 전시를 넘어, ▶생생한 제품 시연 ▶정밀한 제품 검수 ▶효율적인 브랜드 비교가 동시에 가능한 다각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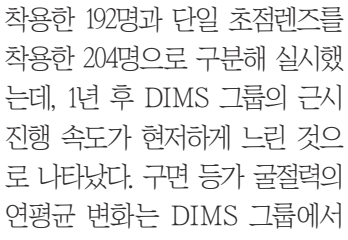


어린이 근시 억제에 'DIMS 안경렌즈' 효과

中 충칭의대 어린이병원, 근시 아동 1년간 조사 결과 DIMS의 근시 억제 확인

세계적인 과학저널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최근 발표된 전향적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 디포커스 통합 다중분할(DIMS) 안경렌즈가 난시를 가속화하지 않으면서 어린이의 근시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충칭의과대학교 부속 어린이병원 연구진은 지난 12개월간 6세에서 12세 사이의 근시 아동 396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참가자는 DIMS 렌즈를 착용한 192명과 단일 초점렌즈를 착용한 204명으로 구분해 실시했는데, 1년 후 DIMS 그룹의 근시 진행 속도가 현저하게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구면 등가 굴절력의 연평균 변화는 DIMS 그룹에서 -0.30±0.45D였고, 단일 초점렌즈 그룹에서는 -0.95±0.57D였다. 또한 안축 길이 연장도 DIMS 착용자(0.16±0.20㎜)가 대조군(0.41±0.21㎜)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관계자는 "우리는 이번 연구를 통해 DIMS 렌즈가 근시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이며, 난시 진행을 가속화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며 "그러나 표본 크기와 추적 관찰 기간이 제한적이기에 DIMS 렌즈와 근시·난시 사이의 관계를 더 자세히 조사하기 위해 더 크고 장기적인 무작위 대조 시험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BOOK | 손재환 원장의 전문가로 거듭나는 실전 가이드 '안경사의 기술'⑤



행동기준

3. 고객 응대

고객 응대 경험이 적은 안경사 신입자들은 고객이 자신에게 오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된다. 또한 고객의 전화 받는 것을 꺼리고 벨소리에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한다. 나 또한 그랬고, 아직 준비되지 않은 안경사에게는 당연한 생각일 수 있다. 그 이유는 군대에 가면 이등병처럼 선임병의 말이 무슨 의도인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안경원은 전문지식을 활용한 서비스업이다. 서비스업에 근무하는 직원인데 본인에게 고객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은 초보자여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직 체계화된 고객 응대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많은 대기업의 서비스업, 예를 들면 백화점이나 카페 등은 고객 응대 매뉴얼을 숙지하고 응대 시뮬레이션 훈련 후 실무에 투입되게 된다. 하지만 안경원에서 처음 근무하는 초보 안경사들은 안타깝게도 이러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되게 된다.

다만, 분명한 것은 안경원에서의 고객 응대는 어렵지 않고 단순하다. 매뉴얼과 절차에 따라 접근해 응대하면 된다. 고객은 안경원에 어떠한 목적, 요구, 니즈(needs)를 가지고 방문하게 되어 있다. 새로운 안경을 맞추기 위해, 콘택트렌즈를 구입하기 위해, 안경테 AS를 받기 위해, 간단히 피팅서비스를 받기 위해, 어떠한 사유로 환불을 받기 위해 등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안경원에 방문한다. 이때 정확한 절차에 맞게 응대·처리하면 되지만, 초보자들은 지레 겁부터 먹고 고객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AS나 환불 고객의 경우에는 방문할 때부터 소리를 치는 경우가 많아 초보자들의 경우 더욱 어려울 수 있다.

고객 응대 경험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해결되겠지만, 내 안경원에서 사용하는 고객 응대 절차를 소개하고자 한다.

〈계속〉



케어링 아이웨어, 2025년 매출 깜짝 상승

동년 대비 3% 성장한 16억유로 달성… 오는 4월 16일 자본시장 설명회 개최

글로벌 명품 아이웨어 기업 Kering Eyewear의 2025년 연간 매출이 2024년 동기대비 3% 증가했다. 케어링 아이웨어는 지난 10일의 실적 발표를 통해 기업 부문의 총 매출이 2025년 기준 16억유로(약 2조 7,382억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케어링 아이웨어의 모회사인 Kering 그룹의 루카 데 메오 CEO는 컨퍼런스 콜을 통해 "2025년의 목표가 우리가 원했던 만큼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는 신속하면서 체계적이며, 흔들림 없는 대응을 이어갔다"며 "실제로 케어링 그룹의 북미지역 연간 소매 매출은 5% 감소했지만, 하반기에는 성장세를 이어가 4분기에 2% 증가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자사는 오는 4월 16일 자본시장 설명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우리의 명확한 브랜드 전략, 더욱 효율적인 조직, 그리고 강력한 재무 규율을 바탕으로 럭셔리 브랜드의 매력을 더 높이고 성장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쿠퍼비전 '마이사이트 원데이' 일본 상륙

일본, 어린이 근시 콘택트렌즈 최초 승인… 쿠퍼, 어린이 시력 향상 다짐

글로벌 콘택트렌즈 기업 CooperVision이 지난 11일 일본에서 원데이 근시 조절 콘택트렌즈인 MiSight를 본격 런칭했다. 지난해 8월 일본 후생노동성으로부터 판매 승인을 획득한 마이사이트 원데이 렌즈는 근시 교정 및 진행 조절을 위해 일본에서 어린이가 사용하도록 승인된 최초의 소프트 콘택트렌즈다.

쿠퍼비전의 제니퍼 램버트 부대표는 "이번 런칭은 전 세계 근시 아동의 삶을 개선하려는 우리의 깊은 헌신을 상징한다"며 "자사는 일본의 존경받는 안과 커뮤니티와 협력해 어린이들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지키면서 아이들의 시력 향상을 돕는 일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근시는 전 세계 어린이 3명 중 1명꼴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2050년까지 근시 인구는 거의 50억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일본 초등학생의 77%가 근시로 추정되며, 전 세계 콘택트렌즈 시장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다.

알콘, WCO와 안구건조증 교육 지원

안구건조증의 조기 발견과 치료 위한 전문가 교육 4년째 후원

세계검안협회(WCO)와 Alcon이 안구건조증(DED) 관련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시작했다. WCO 회장인 신디 트로먼스 박사는 "알콘과의 파트너십을 4년째 연장해 더욱 발전시키게 되어 기쁘다"며 "DED는 적절한 진단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가적인 합병증과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 세계 안경사와 검안사들을 위한 DED 교육을 지원하는 새로운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알콘의 글로벌 전문교육 및 개발 책임자인 칼라 맥 박사는 "전 세계적으로 DED가 증가하는 추세는 우려스럽지만, 검안 전문가들이 조기 발견과 치료 개선에 힘쓰고 있는 점은 무척 고무적"이라며 "알콘은 WCO와 함께 검안사들이 환자 및 동료들과 DED의 측정, 관리 및 완화에 대해 더욱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에실로룩소티카, 2025년 총매출 49조원

2024년 대비 11.2% 상승… 회사측, '2025년은 두 자릿수 성장한 역사적인 해'

세계 최대의 안광학 기업인 EssilorLuxottica 그룹의 지난해 연간 매출이 2024년 대비 환율 변동을 제외했을 때 11.2% 증가하는 고성장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발표된 에실로룩소티카의 연간 재무실적에 따르면, 2025년 매출은 총 284억 9,100만 유로(약 48조 7,413억원)이며, 4분기 매출은 76억유로(약 12조 9,893억원)로, 전년 동기대비 18.4% 증가했다.

에실로룩소티카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실적 향상은 '모든 사업 부문과 새로운 제품 카테고리 전반에 걸쳐 확고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이해 관계자와 업계 전체에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에실로룩소티카의 프란체스코 밀레리 CEO는 "2025년은 우리 회사가 역사상 처음으로 고정환율 기준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을 달성한 역사적인 해"라며 "자사는 지난 4분기에도 사상 최고의 실적으로 또 한 번 기록적인 분기 성장을 달성했는데, 이는 불확실한 거시경제와 지정학적 환경, 그리고 미국의 관세 부과라는 역풍 속에서 혁신을 위해 과감한 투자를 지속한 결과"라고 전했다.

한편 에실로룩소티카는 2025년 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35억 4천만유로(약 6조 503억원), 순부채는 108억 5천만유로(약 18조 5,440억원)이며, 이는 2024년 12월 말의 순부채 109억 7천만유로(약 18조 7,594억원)와 비교하면 약 1.1% 감소한 수치다.

ic! 베를린, 아우디 F1 팀과 협약

창립 30주년 맞아 세계 최고의 자동차 경주 포뮬러원 팀과 파트너십

Marcolin의 소유인 독일 아이웨어 브랜드 ic! berlin이 아우디 레볼루트 F1팀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공식 아이웨어 파트너가 됐다. 이번 파트너십은 ic! 베를린이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이뤄졌으며, 지난 30년간 명확하고 현대적인 미학을 바탕으로 엔지니어링 아이웨어 분야에서 탄탄한 명성을 쌓아온 것을 기념하고 있다.



ic! 베를린의 모회사인 마르콜린의 니콜라 조타 전무이사는 "우리 아이웨어는 정밀함, 깔끔한 디자인, 그리고 세심한 디테일을 바탕으로 설계된다"며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세계 프리미엄급 스포츠 중 하나인 포뮬러1에서 스타일과 성능의 교차점에 ic! 베를린을 선보일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아우디 레볼루트 F1 팀의 스테파노 바티스톤 최고영업책임자는 "우리 팀은 명확성, 자신감, 그리고 현대적인 디자인 언어로 정의되는 브랜드를 구축하고 있다"며 "ic! 베를린은 이러한 사고방식을 공유하고, 엔지니어링 전문성을 강렬하면서도 미니멀한 정체성을 지닌 제품으로 레이싱 경기장에서 우리 팀의 이미지를 한층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내 미생물이 당뇨환자 시력 손실 예방

앨라배마大 연구진, 장내 트립토판 대사물질이 당뇨병성 망막증 억제 확인

미국 과학자들이 장내 미생물군집에서 트립토판 대사를 회복시키는 것이 당뇨병 환자의 시력 손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앨라배마대학교 버밍엄캠퍼스(UAB) 연구진이 국제학술지 「Gut」에 기고한 논문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당뇨병성 망막증에서 미생물군집 기반의 대사 치료법을 위한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제2형 당뇨병에서는 장이 트립토판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는 능력을 잃게 되는데, 트립토판은 건강한 장내 미생물 생태계 유지 등 여러 생물학적 기능을 수행하는 필수 아미노산이다.

장내 주요 대사산물인 인돌-3-프로피온산(IPA)이 혈류로 유입되어 건강한 사람의 망막에 축적되고, 이것이 보호 역할을 하는 사실을 밝혀낸 것.

연구의 책임 저자이자 UAB 안과 및 시각과학과 교수인 마리아 바르톨로메오 박사는 "장내 트립토판 흡수 방식을 조절함으로써 장내 미생물 불균형을 교정하고, 인크레틴 신호 전달을 정상화하여 궁극적으로 망막을 보호할 수 있었다"며 "이번 연구결과는 IPA를 생리적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당뇨병성 망막증의 진행을 늦추거나 막을 수 있고, 더 나아가 당뇨병 합병증을 줄이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日 메니콘, 말레이에 생산공장 신축

6만평 부지에 5천억원 투자한 원데이 전용 공장으로 연간 5억조 생산

일본 나고야에 본사가 있는 콘택트렌즈 대기업인 Menicon사가 말레이시아 케다 지역에 신축한 제조공장을 본격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5일 개최된 말레이시아 공장 개소식엔 말레이시아 콘택트렌즈 업계와 정부 관계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메니콘의 관계자는 "부지면적 200,000㎡(약 60,500평)를 자랑하는 말레이시아 공장은 원데이 콘택트렌즈 전용공장으로 현재 투자액은 500억엔(약 4,733억원)이고, 연간 생산량은 5억 조를생산할 계획"이라며 "이곳은 2차적으로 300억엔(약 2,840억원) 이상의 추가 투자가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



한편 메니콘은 말레이시아에서 연간 20억 조 이상의 생산을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News

국시원, 신임 원장 공모 실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임원추천위원회가 오는 3월 6일까지 신임 원장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신임 원장 모집은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하며,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이다. 공모는 임원추천위의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이사회 의결을 통해 최종 선출된다.

문의 02)2087-8808

마우이 짐, 새 시즌에 새로운 캠페인!

'Color You Can Feel3' 캠페인 열고 프리미엄 퍼포먼스 선글라스 강조

프리미엄 편광 선글라스 브랜드 마우이 짐이 2026 S/S 시즌을 맞아 새로운 글로벌 캠페인 'Color You Can Feel 3'를 공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브랜드 고유의 기술력과 퍼포먼스를 중심으로 한층 진화된 시각적 경험을 제안한다.

이번 캠페인은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는 이들을 위한 프리미엄 퍼포먼스 선글라스 브랜드로서 그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마우이 짐의 독자적인 PP2 렌즈기술을 기반으로 실제 야외환경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능과 레저 및 액티브 스포츠 전반에서 축적해 온 기술적 신뢰도를 강조한다. 서핑, 카약, 하이킹, 트레일 러닝 등 다양한 아웃도어 신을 통해 변화무쌍한 자연환경 속에서도 선명하고 안정적인 시야를 구현하는 제품의 퍼포먼스를



직관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것.

회사의 관계자는 "마우이 짐은 모든 아웃도어 순간에 보다 깊이 있고 정교한 시각적 경험을 제공한다"고 전했다.

문의 010-6394-7071

으뜸50 안산원곡점 신바람 개원

원곡동의 최상 위치서 개원… 15년 경력의 정확한 검안으로 지역민 만족

㈜으뜸50안경(대표 정영길)의 안산원곡점이 지난 6일 화려한 오픈 이벤트와 함께 본격 개원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화랑로에 위치한 안산원곡점은 89㎡(약 27평)의 신규 안경원으로, 안산시 원곡동의 중심지에 위치해 최적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다.

으뜸50안경 체인본부의 관계자는 "다양한 브랜드를 보유한 원곡점은 무엇보다 경력 15년 이상의 안경사가 정확한 검안과 세밀한



으뜸50안경 다대포항역점(사진 좌측)과 별내점

피팅을 제공하는 전문 가맹점"이라며 "더욱이 쾌적한 휴식 공간이 구비돼 안경을 맞추고 편하게 대기하는 원곡점은 방문 고객으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고 전했다.

문의 1522-1584

라운즈, 컬러C/L 플랫폼 '폰피쉬' 런칭

로뮤, 클라셋 등 일본 인기 브랜드 단독 런칭… 우선 12개점서 판매

아이웨어 전문 인공지능(AI) 서비스기업 ㈜라운즈(대표 김세민·김명섭)가 지난 23일 컬러 콘택트렌즈 플랫폼 '폰피쉬(PONPISH)'의 대표 브랜드가 매장에 공식 입점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점으로 라운즈는 기존 안경테와 선글라스 제품군에서 컬러 콘택트렌즈까지 확장, 고객들에게 더욱 폭 넓은 아이웨어 쇼핑 경험을 제공하게 되었다. 특히 라운즈는 폰피쉬 브랜드 입점을 통해 젊은 여성 고객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는 컬러 콘택트렌즈까지 아우르는 토탈 아이웨어 브랜드로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다.

현재 폰피쉬는 라운즈판교점·동탄역점·코엑스마곡점 등을 포함한 전국 12개 가맹점에서 우선 판매되며, 향후 판매 매장을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폰피쉬는 ㈜챙기고(대표 박태홍)가 운영하는 AR·AI 기반의 컬러렌즈 플랫폼으로, '로뮤' '클라셋' '오하' 등 일본 인기 컬러렌즈 브랜드들을 국내에 단독으로 선보이며 2030 여성 고객층 사이에서 빠르게 입지를 넓히고 있다.

문의 070-8850-8319

플러스옵틱, 김형남 신임대표 취임

최원호 前대표 공식 퇴임… 김 신임대표 "새 전략으로 성장 이어갈 터"

으뜸플러스 안경체인을 전개하는 플러스옵틱㈜에 김형남 신임대표(사진)가 취임했다. 이와 함께 2018년 창립 초기부터 대표이사를 역임한 최원호 前대표는 이번 인사를 통해 대표직에서 퇴임했다. 이번 인사는 조직의 새로운 도약과 경영 혁신을 위한 결정으로, 김형남 신임대표는 향후 플러스옵틱의 전반적인 경영을 총괄하게 됐다.

회사 관계자는 "향후 자사는 프랜차이즈 경영에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김형남 신임대표 체제 아래에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통해 계속해서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며 "그동안 회사의 성장을 이끈 최원호 前대표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원호 前대표는 재임 기간동안 으뜸플러스 안경체인의 기반을 견고히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의 02)3665-5777

이노티, 서울사무소 논현동으로 확장 이전

협력사와의 접근성 확대와 현장의 소통 강화 위해 은평구서 이전… 현장의 전초기자로 활용

㈜이노티안경체인(대표 채경영)이 기존 서울 은평구의 서울사무소를 강남구 논현동으로 확장·이전했다. 이번 서울사무소 이전은 협력사와의 접근성 확대와 현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노티는 이번 이전을 계기로 본사와 서울사무소의 업무를 명확히 분담해 경영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노티 본사는 물류센터 운영 및 전반적인 가맹 행정 업무와 경영 지원을 총괄하며 브



랜드의 내실을 다지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이노티 서울사무소는 국내의 트렌드의 중심인 강남의 이점을 활용해 ▶주요 협력업체와의 비즈니스 미팅 ▶수도권 가맹점 소통 ▶마케팅 및 교육 지원 등 대외 협력과 현장 지원 업무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노티의 관계자는 "서울사무소의 확장·이전은 제2의 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본사는 탄탄한 물류 시스템 지원 아래 서울사무소는 현장의 목소리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의 02)757-1212

"눈을 찡그리면 근시 점검하세요"

에실로, 어린이의 근시 조기 관리 중요성 강조… 억제렌즈 '스텔리스트' 권고

㈜에실로코리아(대표 소효순)가 새 학기를 앞두고 학부모들이 일상에서 자녀들의 근시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소개하며, 소아 근시 억제 안경렌즈 '에실로 스텔리스트'를 제안했다.

에실로코리아는 보호자가 자녀들의 일상 속 행동을 통해 시력 이상 징후를 조기에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대표적인 근시 의심 신호는 ▶앞을 볼 때 눈을 자주 찡그리는 행동 ▶TV·책·스마트폰을 가까이에서 보는 습관 ▶눈을 자주 비비거나 과도하게 깜빡이는 경우 ▶한 곳에 시선을 오래 두지 못하는 모습 ▶칠판 글씨나 먼 거리를 잘 보지 못하는 경우 등이라고 밝혔다.

에실로 관계자는 "이 같은 신호가 나타나면 안 전문가를 통한 정밀 시력 검진을 받고, 자녀의 시력 상태에 맞는 맞춤형 근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안약 치료나 콘택트렌즈 착용이 어려운 어린이는 비접촉식으로 시력 교정과 근시 관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근시 진행 억제 안경렌즈인 에실로 스텔리스트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문의 02)6350-1050

EnvoyVision

합리적인 가격, 믿을 수 있는 품질.
행사 기간 중 한정 수량으로 공급됩니다.

(행사기간 26년 2월 28일~제품 소진시)



헬로 키티 멀티 플러스 솔루션
355ml / 150ml

헬로 키티 150ml
1박스(100개) : 총 60,000원
EVENT 2+1 행사 진행
3박스(300개): 총 120,000원
실구매가 기준 1개당 400원

헬로 키티 355ml
1박스(48개) : 총 115,200원
EVENT 50% 할인 행사
1박스(48개) : 총 57,600원
실구매가 기준 1개당 1,200원



하이피아 멀티 플러스 솔루션
150ml / 60ml

하이피아 60ml
1개당 : 400원
1박스(200개) : 총 80,000원

하이피아 150ml
1개당 : 600원
1박스(100개) : 총 60,000원

문의 및 주문 **055-1544-5769**

NAVER 엔보이비젼 | coupang 엔보이비젼

www.envoy.co.kr
25년 콘텍트 렌즈 제조 경험의 바이오 전문

구찌, 올해 S/S 아이웨어 캠페인 개시

세련된 라인부터 레트로 감성 총출동… 현대미와 고품격 환상 조화

이탈리아 럭셔리 브랜드 구찌가 2026 S/S 시즌의 아이웨어 캠페인을 공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다양한 개성과 태도를 지닌 인물들의 클로즈업 포트레이트 비주얼을 통해 새로운 아이웨어 컬렉션을 감각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새롭게 선보이는 아이웨어 컬렉션은 세련된 스타일부터 레트로 감성이 가미된 디자인까지 폭넓은 실루엣으로 전개된다.



캠페인 이미지에는 프레임 측면의 메탈 구찌 로고가 장식된 오버사이즈 스퀘어 실루엣이 뛰어나고, 아세테이트 소재의 캣츠아이 프레임도 함께 등장해 서로 다른 매력을 드러낸다. 또한 남성 모델의 비주얼은 메탈 플라크에 구찌 로고 디테일이 더해진 블랙 스퀘어 선글라스를 선보이고, 또 다른 이미지에서는 다양한 쉐입의 아세테이트 옵티컬 프레임이 등장해 현대적인 애티튜드와 하우스의 시그니처 디자인 코드를 조화롭게 보여주어 젊은 층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문의 010-6394-7071

선글라스 시장 요동… 신상 플럼에디터는 무엇?

팬텀, 캣츠아이 실루엣에 콤비 시리즈 런칭… 빈티지 매력 활짝

㈜팬텀옵티칼(대표 장용찬)이 플럼에디터의 선글라스 신제품 라인을 선보였다.

최근 출시된 플럼에디터의 레이 시리즈는 라운드 캣츠아이 실루엣의 콤비네이션 콘셉트의 선글라스로 가벼우면서 견고한 압축 아세테이트 프레임으로 제작됐으며, 세련된 메탈 템플이 더해져 우아함과 편안한 착용감을 동시에 제공한다.



회사의 관계자는 "메탈 템플엔 브래드 네임의 'PL'을 입체적으로 형상화한 메탈 심볼이 디테일하게 적용돼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고급스럽게 강조했다"며 "빈티지 매력과 현대적 세련미가 어우러진 이번 2026년 S/S 시즌의 신상은 출시 초반부터 높은 주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문의 070-4257-6102

연예인이 즐겨 찾는 안경은 '까르뱅'

투페이스,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범규 씨 착용… 절묘한 림 쉐입에 눈길

투페이스옵티칼(대표 고대우)의 대표 브랜드 CARVEN이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멤버 범규 씨에게 협찬됐다.

그에게 제공된 컬렉션은 까르뱅의 Clock col.1으로 이 모델은 너무 둥글지도, 각지지도 않은 절묘한 림 쉐입으로 지적이면서도 부드러운 이미지를 동시에 연출해 주는 장점을 갖고 있다.



까르뱅의 관계자는 "미니멀한 실루엣으로 과도한 장식 없이 선의 미학을 살림으로써 안경 그 자체로 하나의 코디가 될 수 있다"며 "또한 이 안경은 티타늄 소재를 사용해 매우 가벼운 착용감을 자랑한다"고 설명했다.

문의 053)353-7851

룩옵틱스, '소프트 파워'로 봄패션 유혹

젊은 층에 휠라와 룩옵틱스의 저채도 컬렉션 강력 어필… 실루엣에 방점

㈜룩옵틱스(대표 허명효)가 2026년 봄패션을 관통하는 키워드로 '소프트 파워'를 선정, 이에 잘 어울리는 컬렉션을 선보였다.

부드러운 인상을 풍기려면 아이웨어 선택이 중요하기에 이번 시즌 프레임 두께는 자유롭되 실루엣에 방점을 둔 것이 특징인데, 대표적인 아이웨어로는 휠라와 룩옵티컬 등을 꼽을 수 있고, 특히 계절적인 감각에 잘 어울리는 저채도의 딥 뉴트럴이 젊은층으로부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휠라 아이웨어(상단)와 룩옵티컬

문의 1599-3016

명동 아이닥 '프리미엄 큐레이션 존' 호평

최신 명품 전시 • 판매하는 서비스형 코너에 고객들 3색 웃음꽃

서울 명동의 아이닥 안경원(원장 김영근)이 매장 내 프리미엄 큐레이션 존인 '에디터스 초이스'를 마련했다. 이는 기존 고객들에게 최신 제품을 합리적인 조건으로 제안하는 서비스형 코너로 까르띠에를 포함한 최상위 명품 안경테와 선글라스, 프리미엄 스포츠 고글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일반적인 세일 코너와 구분되는 에디터스 초이스는 이월 상품이나 저가 제품의 판매를 위한 것이 아닌 최신 트렌드 제품을 일정 기간에만 전시하는 큐레이션형 서비스다. 특히 아이닥 안경원은 이번 서비스 코너에 안경테, 선글라스, 고글 등 다양한 카테고리를 혼합•진열해 고객이 일상용과 활동 목적형 아이웨어를 한 공간에서 비교하도록 설치해 높은 주목을 받고 있다.



문의 02)754-0110

포텍, 'CE MDR' 인증 획득

유럽연합 의료기기 규정 적합성 평가 인증서 받아… 유럽 진출의 교두보 마련

㈜포텍(대표 고안수)이 지난달 26일 대전 본사에서 글로벌 인증기관인 ㈜티유브이 노르트 코리아(대표 김광태, TNK)로부터 유럽연합 의료기기 규정(EU MDR) 요구사항에 따른 적합성 평가 인증서의 수여식을 가졌다. 이번 인증은 포텍을 대상으로 기술문서 및 임상평가 검토, 품질경영시스템 심사, 적합성 평가 절차를 기반으로 MDR 요구사항 충족 여부가 종합적으로 검증됐다.



사진 좌측부터 차례대로 포텍 고안수 대표, TÜV NORD Korea 김광태 대표.

TNK의 김광태 대표는 "이번 인증은 포텍의 안광학 의료기기가 유럽연합에서 요구하는 수준 높은 안전성과 성능 요건, 품질경영시스템(QMS) 관련 규제 요구사항을 충족함을 확인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내 의료기기 제조사가 글로벌 규제 요구사항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유럽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신뢰성 있는 인증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포텍의 고안수 대표는 "자사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유럽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신뢰도를 더욱 높이고, 글로벌 안광학 의료기기 시장에서 경쟁력을 더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EU MDR은 기존 의료기기 지침(MDD) 대비 임상평가, 기술문서, 시판 후 감시 및 사후관리 요구사항이 강화된 규제로 유럽시장 진출을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규정이다.

문의 042)632-3536

"나눔은 행복의 시작입니다"

으뜸안경친구 대구서부점, 취약계층 찾아 안경 지원… '올해도 봉사 지속'

으뜸안경친구(대표 김찬일)의 대구서부점이 주변 이웃들에게 따뜻한 선행을 전달하고 있어 안경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대구서부점은 지난 1년간 인근의 주민복지센터 3곳에 매월 안경교환권 9매 등 총 108매를 지속 후원하고 있다.



대구서부점의 류재식 원장은 "우리는 주민복지센터 사회복지과를 통해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독거 어르신 등에게 정확한 시력검사 후 맞춤 안경을 후원하고 있다"며 "인근 취약계층에 새롭게 조제된 안경을 전달할 때 밝은 세상을 보고 활짝 웃는 이웃을 보면서 나눔의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문의 010-5221-1080

서울안경사회,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소상공인연합회 통해 지난 20일까지 선착순 4천여 소속 안경사 가입

서울시안경사회(회장 김원철)가 회원 대상의 풍•수해보험 무료가입 지원을 추진했다.

지난 20일까지 가입 신청이 마감된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주도하는 풍•수해보험 무료가입 지원으로, 안경사 정회원 중 1층과 지하, 전통시장 소재 사업장의 안경사, 선착순 4천명을 대상으로 전개됐다.

이번 보험은 소상공인의 풍•수해를 비롯해 지진 및 화재보험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현재 수많은 안경사 회원이 해당 보험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의 02)393-3206



지난 2024년 7월 집중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논산의 안경원을 방문해 지원금을 전달하는 대한안경사협회 중앙회와 충남안경사회 임원들.

APOC 참가 시 보수교육 4평점 인정

서울시안경사회, 2일간 각 4시간 교육참가 인정… 산업체 세션 참석 권고

서울시안경사회(회장 김원철)에서 오는 4월 20일 개최되는 제25회 아시아•태평양검안학술대회(APOC)의 회원 참가를 권장하고 있다.

오는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제주도 해비치호텔에서 이틀간 개최되는 이번 APOC에 참가하는 안경사는 2026년 현장보수교육 4평점을 인정한다. 또 보수교육 인정기준은 2일간 각 4시간 이상 참석하는 산업체 세션 4개 필수 참석이 요구된다.

서울시안경사회의 관계자는 "참가 등록 및 결제는 APOC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셀프 등록이 원칙"이라며 "행사 종료 후 카카오톡 채널 동의자에 한해 이수 완료 시 전자 이수증을 발송한다"고 설명했다.

문의 02)393-3206

대구보건대, '안경산업 발전포럼' 개최

진흥원 • 광학조합 등 공동 주최… 대구 뿌리산업 살리기 구원 등판



대구보건대학교(총장 남성희) L-라이프산업지원센터가 지난 12일 대구 인터불고 엑스코 디럭스홀에서 지역 안경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안경산업 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대구보건대와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원장 김종한)•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이사장 정왕재)이 공동 주최했으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대학연계 지역 전통산업 고도화 지원과제'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는 기업들에게 가장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춰 ▶안광학산업 지원사업 및 정책 안내 ▶대구보건대 RISE 연계 기업 지원 및 인재양성 프로그램 ▶정책자금 및 판로•수출 지원 등 기업 운영에 필수적인 정보를 공유받았다. 대구보건대 김영준 총괄부총장(유아교육학과 교수)은 "대구의 뿌리 산업인 안광학 산업이 다시금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지자체와 대학, 산업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RISE 체계 안에서 지역 전통산업의 고도화를 이끌어내는 실질적인 기업 지원과 맞춤형 인재 양성에 대학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대구테크노파크•대구신용보증재단•대구섬유마케팅센터 등 지원기관과 지역 안경산업체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산•학•관의 협력 기반을 다졌다.

문의 053)320-1208

안경사 맞춤형 '대박 디옵스' 준비 순조

국내외 140여 기업 참가 속 4월 1일 개막… 안경사의 이익 제공에 초점

대구광역시가 주최하고 (재)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원장 김종한)이 주관하는 '2026 대구국제안경전'이 오는 4월 1일부터 3일까지 대구 엑스코 서관 1, 2홀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특히 이번 디옵스는 전국 안경사들이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현장 특가 프로모션과 단독 미출시 모델 공개 등 초호화 수주 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올해 디옵스에는 국내외에서 약 150개사가 참가해 최신의 아이웨어를 선보이고, 특히 행사 기간에는 안경사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펼쳐진다. 전시장 중앙 메인 스테이지에서는 참가 기업들의 신제품 런칭쇼와 제품 설명회가 개최되어 안경사들이 현장에서 2026년 디자인 트렌드를 파악하고 최신 라인업을 도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진흥원의 김종한 원장은 "디옵스는 국내 유일의 국제광학전으로, 대구가 세계 안경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참가 기업들은 새로운 비즈니스 활로를 열고, 안경사들께는 실익과 풍부한 파트너십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디옵스 기업참가 및 사전참관등록은 디옵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고, 참가기업 부스마감은 2월 28일까지, 사전 참관등록은 3월 27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문의 053)350-7800

경기안경사회, 보수교육일 확정

경기북부 3월 11일, 남부 6월 24~25일 실시… 교육은 현장서 접수해야

경기도안경사회(회장 신영일)의 2026년 상반기 안경사 보수교육 일정이 발표됐다.

북부와 남부로 나누어 실시되는 이번 경기 보수교육은 북부는 오는 3월 11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남부는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동남보건대학교에서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오후 1시 반부터 4시 40분까지 각각 전개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개최된 경기도안경사회의 2025년 안경사 보수교육 현장.

경기도안경사회의 관계자는 "보수교육 참가는 대안협 홈페이지에서 교육비 납부 후 수강해야 한다"며 "특히 교육접수는 모두 현장에서 접수하는 점을 유의해 달라"고 전했다.

문의 031)258-8787

'이제, 서울도 시기능 특수훈련 지원'

3월부터 서울특별시 치료지원에 포함…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매월 16만원 지원

OVDRA Korea 국제지부(이사장 신효순, 한국시기능훈련교육협회)가 오는 3월부터 시각장애 아동들이 서울에서도 시기능훈련 치료지원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시기능훈련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해 서울특별시 치료지원 영역에 공식 포함되었음을 뜻한다.

한국시기능훈련센터 윤정호 원장(강남센터)은 "국립특수교육원에 보고된 장애 유형 중에서 시각장애(저시력)는 2% 미만에 불과하지만, 한 아동의 인생과 그 가정을 들여다보면 유병률과 상관없이 치료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시기능훈련이 필요한 저시력 아동과 그 가정이 더욱 밝게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시기능훈련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치료지원 대상은 영아, 유•초•중•고등학생 특수교육 대상자이고, 치료지원 금액은 매월 16만원에 1일 횟수 제한 없이 실비로 지원한다.

문의 070-82743280

수성대 안광과, 현장 실습생 순회지도

교수진, 현장실습 근무 중인 졸업생 • 실습생 찾아 격려… 산학협력 꼼꼼 확인

수성대학교 안경광학과(학과장 정지원)가 지난 20일 '2026 동계방학 현장실습 순회지도'를 실시했다. 대구시 동성로의 하파크리스틴 윙크 콘택트렌즈 전문점을 방문한 교수진은 이곳에서 근무 중인 졸업생과 재학 실습생으로 참여한 제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성대 안광과의 학과장인 정지원 교수는 "졸업생, 재학생과 함께 실제 검안 프로세스와 최신 컬러 콘택트렌즈 트렌드를 공유하는 등 의미 있는 산학협력 교류를 실행한 하루가 됐다"고 전했다.



문의 053)749-7065~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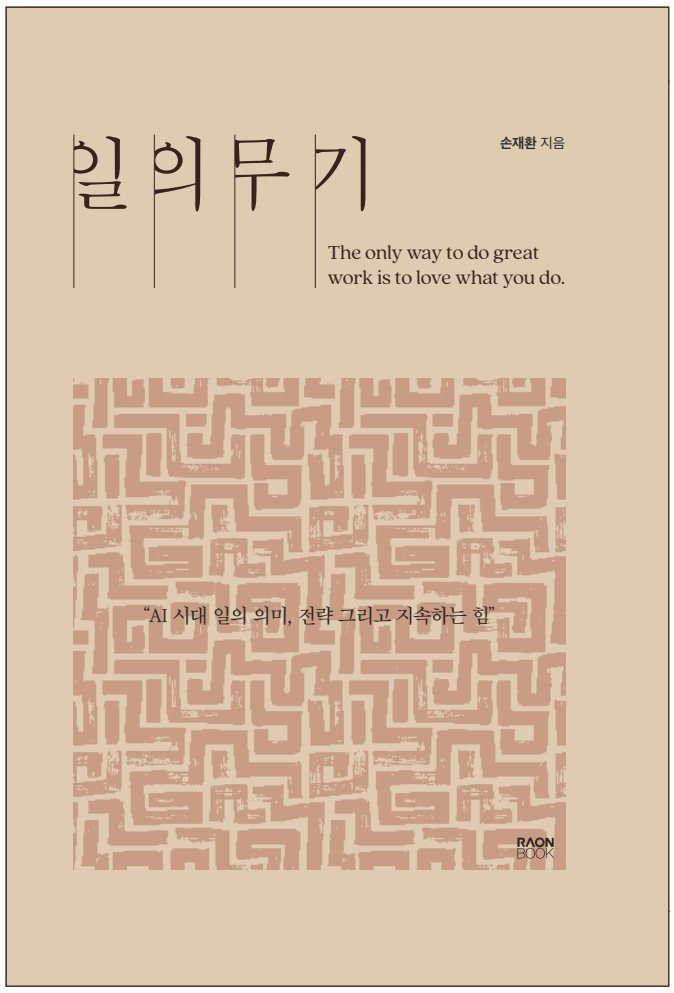
각종 매체에 보도된 안경 종합뉴스





▶이 안경, 벌써 불티나게 팔린다… "291조원 규모 커질 것" 뭐길래(중앙일보/ 2월 15일)
▶애플 • 구글도 스마트 안경… 빅테크 '눈싸움' 시작됐다(서울신문/ 2월 18일)
▶안경 김 서림, 단순 불편 넘어 '추락 사고' 부른다… 겨울철 각별한 주의(스포츠동아/ 2월 18일)
▶AI 바빌론, AR 번역 안경 'Leion Hey2' 와디즈 공식 론칭(머니투데이/ 2월 19일)
▶빅테크는 왜 스마트 안경 탐할까?(이코노믹 리뷰/ 2월 20일)

신간



20대 중반에 개원해 35년간 한결같이 안경원 운영에만 전념해온 손재환 대표 원장.
손재환 대표 원장의 9번째 저서인 「일의 무기」는 갖가지 어려움을 용기와 성실함으로 이겨낸 손재환 대표 원장의 자전적 경영서이다.
특히 손재환 대표 원장은 이 저서에서 자신에게 일이 주어진 난관으로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을 때 이를 극복해 찾아오는 즐거움, 즉 일이 진정으로 즐거움을 준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고수의 경지'에 오르고, 이때부터 인생 전체가 긍정 에너지로 바뀐다고 말하고 있다.
이로써 자전적 경영 지침서인 「일의 무기」는 고단한 삶과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용기를 심어주는 희망의 메시지가 가득한 보감(寶鑑)의 저서이다.

Part 1 - AI 시대에 왜 일하는가?
Part 2 - 일 잘하는 고수는 이것이 다르다
Part 3 - 바짝 벌어서 평생 놀 수 있을까?
Part 4 - 나의 일의 가치를 높이는 14가지 질문
Part 5 - 어떤 사람이 되어, 누구와 일할 것인가

손재환 지음 | 라온북 발행 | 260쪽 | 22,000원

손재환 대표 원장 주요 저서



장사 교과서 **'사장편'**
손재환 지음 | 라온북 발간 | 276쪽 | 18,000원



장사 교과서 **'매장편'**
손재환 지음 | 라온북 발간 | 297쪽 | 1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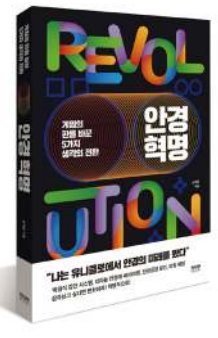
장사 교과서 **'고객편'**
손재환 지음 | 라온북 발간 | 299쪽 | 18,000원



장사 교과서 **'직원편'**
손재환 지음 | 라온북 발간 | 298쪽 | 18,000원



'안경사의 기술'
손재환 지음 | 라온북 발간 | 294쪽 | 29,500원



경영학 원론 **'안경혁명'**
손재환 지음 | 라온북 발간 | 257쪽 | 15,000원



한국형 탈무드 **'일류 아빠의 생각'**
손재환 지음 | 라온북 발간 | 255쪽 | 15,000원



흘러내리지 않는 **'안경피팅의 정석'**
손재환 지음 | 라온북 발간 | 256쪽 | 38,000원


BLACK BARON
EYEWEAR

Star EyeWear

아이웨어의 상큼한 파워! 또 다른 나를 찾는다!

시선을 사로잡는 개성과 감각미가 물씬 풍기는 다양한 아이웨어들. 각종 인쇄 매체나 TV 속 연예인들의 선글라스 패션이 그대로 소비자에게 이어지는 유행의 패러다임 속에서 최근 트렌드 세터 연예인들이 착용한 아이웨어는 어떤 것이 있을까. 대중의 시선을 한순간에 모으는 대세 스타들의 화려한 아이웨어. 최신 안경 유행의 흐름을 따라가보자.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가을이 안경을 활용한 셀피로 근황을 전했다. 회색 톤 배경 앞에서 레드톤의 헤어와 검은색 스퀘어 림의 도수테를 매치해 도도한 멋을 잔뜩 뿜어냈다.



가수 손나은이 최근 패션 매거진의 화보 촬영 현장을 담은 사진으로 근황을 알렸다. 후드가 달린 카키색 재킷을 걸친 그녀는 아웃도어 선글라스로 실용적이면서 쿨한 룩을 선보였다.



걸그룹 베이비몬스터의 멤버 치키타가 지난 23일 해외일정을 마치고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근래 트렌드로 떠오른 다소 작아진 림 사이즈의 선글라스가 주목된다.



가수 박재범이 해외일정을 위해 지난 2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이탈리아로 출국했다. 베이지 컬러의 재킷과 코튼 팬츠, 그리고 라운드 림의 도수테로 캐주얼한 공항패션을 연출했다.



걸그룹 있지의 멤버 류진이 지난 21일 해외 일정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했다. 과거에 비해 한결 축소된 림 사이즈의 선글라스가 한결 산뜻한 느낌을 부여하고 있다.



걸그룹 있지의 멤버 리아가 지난 22일 해외일정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작은 사이즈의 짙은 농도를 가진 림의 선글라스가 걸크러시 무드를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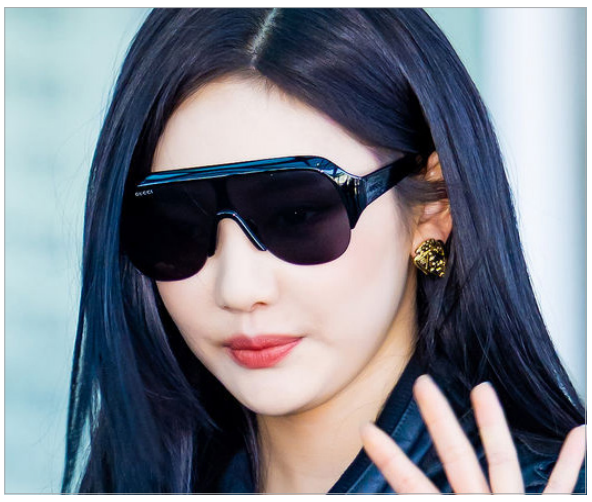
걸그룹 소녀시대의 멤버 효연이 지난 1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외일정 참석 차 태국 방콕으로 출국했다. 그라데이션 렌즈의 선글라스가 우아한 애티튜드를 완성했다.



걸그룹 트와이스의 멤버 모모가 지난 1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외일정 참석 차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했다. 작은 림의 날렵한 선글라스로 엣지 있는 공항패션을 완성했다.



배우 왕빛나가 최근 개인 SNS를 통해 편안한 일상을 공개했다. 헌팅캡과 함께 오버사이즈 라운드 림의 도수테를 착용해 소탈하면서도 내추럴한 매력을 가득 드러냈다.



걸그룹 에스파의 멤버 닝닝이 지난 2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이탈리아 밀라노로 출국했다. 림에 사이드월이 장착된 유니크한 디자인의 선글라스가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네오이즘의 새로운 뮤즈는 '배우 오예주'



지난해 말부터 네오비젼의 새로운 뮤즈로 선정된 오예주 씨는 청순하고 청량한 이미지로 주목받고 있는 신예 배우이자 모델이다. 현재 지난 20일부터 '판사 이한영'의 후속으로 방영 중인 MBC 금토드라마 '찬란한 너의 계절에'에서 세 자매 중 막내인 송하담 역으로 출연하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그와 함께 하고 있는 네오이즘은 인체적합성 소재인 MPC가 함유된 프리미엄 컬러 콘택트렌즈로, 타 제품 대비 장시간 착용에도 편안함과 촉촉함이 유지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머드블랙 ▶밀크브라운 ▶슈퍼클리어 ▶퓨어베이지 ▶달리초코 등 다양한 베리에이션 등으로 근래 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네오비젼 ‖ 문의 031)627-551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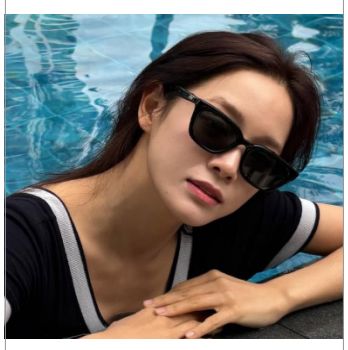
Entertain-ment



이동휘, 거울 셀피도 '힙하게…'

배우 이동휘가 자신만의 개성이 돋보이는 스타일리시한 일상을 공유하며 근황을 전했다. 지난 20일 이동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Off'라는 짧은 문구와 함께 거울 셀피 여러 장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서 이동휘는 브라운 톤의 모헤어 니트를 착용해 계절감을 살린 포근한 룩과 머리 위에 걸쳐 올린 뿔테 안경 등으로 특유의 '힙'한 포인트를 더했다.

물오른 미모의 김세정 선글라스 하나로 올킬



가수 겸 배우 김세정이 휴양지에서 여유로운 순간을 공유하며 팬들의 시선을 압도했다.

김세정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수영장에서 찍은 사진 여러 장을 게재했다. 사진의 백미는 단연 김세정의 '반전 분위기'로 공개된 사진 속에서 그녀는 푸른 물결이 일렁이는 풀장에 몸을 담근 채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

일상 모습도 화보인 강민경 재킷에 뿔테 끼면 매력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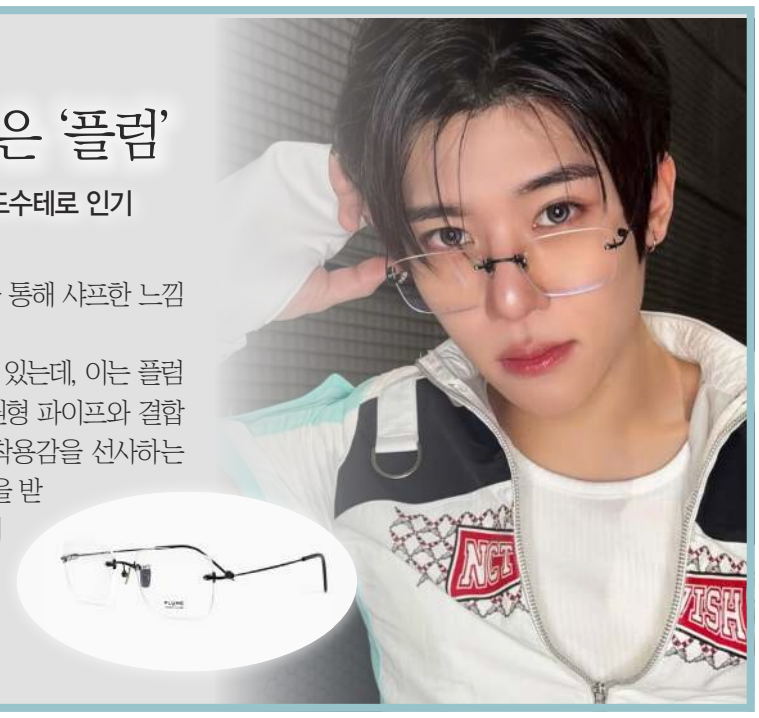
가수 겸 사업가 강민경이 일상 속에서도 감출 수 없는 세련된 비주얼을 과시했다. 지난 22일 강민경은 자신의 SNS에 '똑똑… 주말 잘 보냈어요?'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여기서 강민경은 화이트 이너 위에 오버사이즈 베이지 재킷을 매치해 차분하면서도 고급스러운 가을 룩을 선보였다. 무엇보다 뿔테를 더해 평소의 화려한 무대 위 모습과는 또 다른 지적이고 내추럴한 매력을 발산했다.

NCT WISH 메인 보컬의 안경은 '플럼'

최근 방송활동서 플럼 즐겨 착용… 스퀘어 스타일의 림 리스 도수테로 인기

그룹 NCT WISH의 멤버 시온이 최근 방송활동과 SNS 등을 통해 샤프한 느낌의 안경을 선보여 팬들에게 화제로 떠올랐다.

근래 그는 스퀘어 스타일의 림 리스 도수테를 자주 선보이고 있는데, 이는 플럼의 P-2977 C1 컬렉션으로 확인됐다. 와이어 메탈을 밴딩하여 원형 파이프와 결합된 견고한 힌지 구조로 우수한 내구성과 탄성력으로 가벼운 착용감을 선사하는 시온의 안경은 그와 최적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팬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더욱이 해당 안경은 아세테이트 템플 팁의 끝부분에 티타늄볼 디자인을 추가해 심미성과 무게 밸런스를 맞추도록 제작되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안경 속 맑은 눈빛 주우재 '나에겐 길거리가 런웨이'

모델 겸 방송인 주우재가 남다른 비율과 감각적인 사복 패션으로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지난 20일 주우재는 자신의 SNS 채널을 통해 일상의 순간을 담은 사진 여러 장을 게재했다. 붉은 벽돌 건물을 배경으로 촬영된 사진 속에서 그는 그레이 톤의 아우터에 검은색 뿔테 안경을 매치해 스마트한 이미지를 연출했다. 특히 어깨에 멘 큼지막한 블랙 위빙 빅백은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룩에 확실한 무게감을 더하며 그만의 패션 센스를 입증했다.





오픈카 오른 블랙핑크 로제

핫 핑크 독보적 아우라… 럭셔리 무드 완성

걸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로제가 하이틴 영화 속 주인공을 소환한 듯한 강렬한 비주얼로 근황을 전했다. 로제는 지난 15일 자신의 SNS 채널을 통해 이국적인 배경 속에서 촬영된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이를 통해 로제는 강렬한 핫 핑크의 오픈카에 몸을 기댄 채 카메라를 응시하며 특유의 몽환적이면서도 시크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특히 트레이드마크인 금발 헤어스타일에 세련된 블랙 선글라스를 머리 위에 툭 걸친 모습으로 럭셔리한 무드를 완성했다.



상남자 덱스의 반전 이미지 포켓몬 레고 조립에 '진심'

방송인 덱스가 자신의 이미지와 대비되는 섬세한 취미 생활을 공개해 화제다. 지난 14일 덱스는 자신의 개인 SNS 채널을 통해 'WITH LEGO'라는 짧은 문구와 함께 사진 여러 장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서 검은색 후드 티셔츠 차림에 안경을 착용한 덱스는 자택으로 보이는 공간에서 레고 조립에 열중한 모습을 선보였다.

Quiz SUDOKU 기초 공략

4	7				6	8	2	5
1	2		3				7	9
6				2		3		
8	5						3	7
	6					9	5	4
				7		1		6
5	4		8				1	2
3				5	2			
			7		1		9	

SUDOKU 정답 〈지난호〉

6	7	2	1	9	8	4	5	3
1	4	9	3	2	5	8	7	6
8	5	3	6	7	4	1	2	9
5	6	4	8	3	2	9	1	7
9	1	8	5	6	7	3	4	2
3	2	7	4	1	9	6	8	5
2	8	1	9	5	3	7	6	4
7	3	6	2	4	1	5	9	8
4	9	5	7	8	6	2	3	1

▶ 스도쿠 게임 규칙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간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간다.
3. 가로 세로 3×3칸의 모든 블록에도 1~9까지의 숫자가 하나씩 들어간다.

doing MEDIA (두잉미디어) Optic Weekly
우(04501) 서울시 중구 만리재로 185, 101동 1106호 (만리동2가. KCC파크타운)
대표전화 : (02)-313-5585 FAX : (02)-363-0345
이메일 : opticweekly@naver.com 홈페이지 : www.opticweekly.com
취재국 / 영업국 / 광고신청 / 구독신청 : (02)-363-3885
등록일 : 2010년 1월 6일 등록번호 : 서울 다09905(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신청 : 우리은행(1005-004-387851) 예금주 : 두잉미디어
발행 : 두잉미디어 옵틱위클리 발행인 : 김태용 간별 : 격주간 구독료 : 년24,000원 1부 : 1,000원



국내 최대 안경체인
다비치안경과 함께 하세요!

DAVICH

1 **가맹점 상생**을 위해 노력합니다.
최대 3억 창업 대출 프로그램, 업계 최초 법률 상담 지원

2 **안경사 전문 교육**에 앞장 섭니다.
사관·공채를 통한 전문 인재 보급, 전문적인 교육 시스템

3 **지역핵심 상권**을 찾아 드립니다.
전문적인 상권 분석을 통해 매장 오픈

4 **가맹점의 매출 성장**을 위해 힘씁니다.
전략적 마케팅 활동과 맞춤 컨설팅 시스템 제공







다비치안경은 **전문적이고 다채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합니다.

DAVICH 릴레이 오픈중

2026
- 2월 신제주연북로점
- 3월 인천불로점
- 포항원동점

[오픈예정지역] 해당지역 안경사님께 오픈 우선권을 드립니다.

서울 강동구 : 상일동역 / 강동구청역 강남구 : 강남구청역 / 강남역 / 수서역 / 논현동 강서구 : 까치산역 / 화곡역 / 신방화사거리 관악구 : 낙성대역 / 난곡사거리 광진구 : 건대입구역 / 자양사거리 / 군자역 / 아차산역 구로구 : 신도림동 테크노마트 / 구로구청사거리 / 개봉역 / 대림역 금천구 : 가산디지털단지역 노원구 : 수락산역 / 상계역 / 마들역 / 중계학원가 동대문구 : 회기역 / 청량리역 / 전농동사거리 동작구 : 상도역 / 흑석역 / 남성역 / 노량진역 / 장승배기 마포구 : 공덕역 사거리 / 합정역 / 망원동 / 디지털미디어시티 서대문구 : 홍제역 / 가좌동 모래내시장 서초구 : 반포동 고속터미널 / 교대역 / 남부터미널 / 양재 성동구 : 행당동 무학여고사거리 / 성수동 성북구 : 석계역 / 석관동 / 종암동 / 성신여대입구역 / 한성대입구 송파구 : 문정동 법조타운(가든파이브) / 거여역 / 개롱역 영등포구 : 당산역 / 영등포구청 은평구 : 은평뉴타운 종로구 : 종각 / 종로3가 / 창신동 / 대학로 / 경복궁역 중구 : 을지로4가역 / 신당역 / 약수역 사거리 중랑구 : 신내동 / 동부시장 영남 부산 : 센텀시티역 벡스코 / 부산시청앞 / 연산동 / 명지국제신도시 / 기장정관 울산 : 화봉동 대구 : 지산동(지산역 사거리) / 침산동 / 화원삼거리 경북 : 구미 옥계동 / 문경 경남 : 진주 평거동 경기 광명 : 광명KTX역 / 철산역 / 소하동 부천 : 소사본동 / 송내역 성남 : 모란역 / 정자역 / 오리역 시흥 : 장현지구 / 목감지구 안산 : 선부동 / 고잔동 안양 : 범계역 / 인덕원 용인 : 성복동 / 보정동 / 구성마북지구 / 기흥구청 / 역북지구 의정부 : 회룡 인천 : 동춘동 / 신현동 / 석남동 / 소래포구역 / 서구청 / 서창지구 / 영종도 / 제물포 파주 : 금촌동 / 금릉역 / 운정지구 / 문산읍 고양 : 탄현역(중산동) / 주엽역 / 마두역 / 풍동지구 / 삼송지구 김포 : 걸포지구 과천 : 과천시청역세권 남양주 : 별내신도시 / 도농역 동두천 : 지행역상업지 양주 : 회천지구 양평 : 시장~터미널 의왕 : 오전동(의왕 이마트 앞) 화성 : 화성시청신도시 안성 : 공도 강원 홍천 대전 관평동 / 도마동 / 월평동 충남 배방읍 아산역 / 천안행정타운 광주 금호지구 / 일곡지구 / 봉선동 / 운암동 전남 여수 웅천동

[브랜드 대상 내역] 소비자가 직접 선택한 다비치안경!

가맹상담문의 010-4087-0250 - 이메일 문의 가능합니다 - jewdas305@davich.com

다비치 안경 다비치 보청기 다비치 홀딩스 KVISION

Optic Weekly
Since 1993
www.opticweekly.com
안경은 무조건 편해야 한다! 주간 옵틱위클리 2026년 2월 28일 발행 (387호)
ABC 부수인증매체 한국ABC협회

JIN OPTICAL 국내 최저가 공급 www.opticalomarker.com
도수렌즈 완제품 국내 최다보유 ● CR 평면, 밀러렌즈, 각종 평면렌즈, 다량 보유
취급 품목 CR39, 중굴절, 고굴절, 중누진 변색렌즈, 고굴절 청광 차단렌즈
중·고굴절 컬러 초발수 렌즈 등 각종 Rx렌즈 취급
진광학 | 사업자등록증 확인 후 선입금 • 현금 판매만 가능, 5만원 이상 택배비 무료
TEL. 02-773-1001, 752-2810 • FAX. 02-757-8173, 775-1002

